

리아호나



리아호나



표지

앞: 그림 델 파슨
뒤: 사진 스티브 번더슨



친구들란 표지
사진 스티브 번더슨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두려워 말라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18 예레미야: 토기장이의 진흙 진 에이 티판 장로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신권 지도자를 지지함
- 26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은 세상에 가서 나의 이름을 증거함"
얼 시 텅기 정로
- 36 리아호나 고전: 결혼으로 하나가 됨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 42 말일성도의 소리
살아있는 간증 헬렌 스투르드반트
그분의 이름을 지니라 라울 그라시아
평범한 사람들 마리아 마빌리아
러시안 듀엣 스웬 닐슨
- 48 리아호나 2002년 10월호 활용하기



36쪽 참조

청소년란

- 8 영적인 악어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 12 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외설물의 함정을 피함
- 22 질의 응답: 저는 슬플 때가 많습니다.
좀더 행복을 느끼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33 그분은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 발레리아 텔로
- 34 리아호나는 나의 지침이었다 필립 에스 자발레
- 47 알고 계십니까?

친구들란

- 2 와서 예언자의 음성을 들으라: 기도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4 함께 나누는 시간: 신앙은 우리가 옳은 일을 선택하도록 도움
비키 예프 마쭈오리
- 6 "때가 올 것이다" 샤나 기비
- 9 신약 성서 이야기 : 구세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심;
과부의 동전
- 14 노래: 내가 할 일 엘 클레어 라이크스와 반자 와이 왓킨스
- 16 심심풀이
최초의 성전들 앤 우드베리 무어
요셉의 채색옷 마리암 그리스삼

12쪽 참조



34쪽 참조



친구들, 2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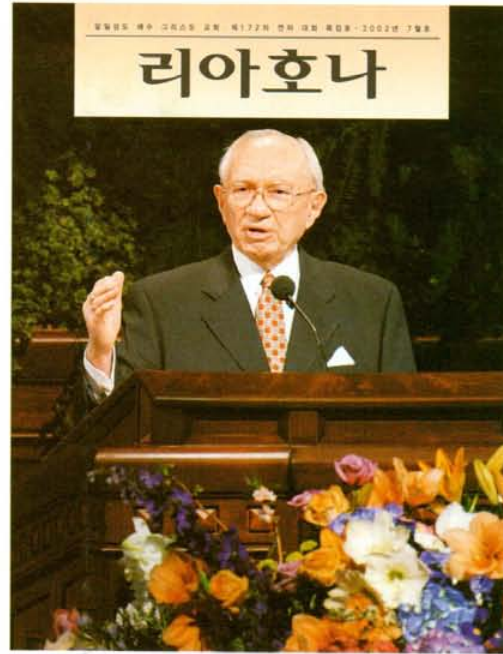
더 일찍 받아 보게 될 리아호나 연차 대회 특집호

리아호나 연차 대회 특집호를 좀 더 일찍 받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음 달부터, 그렇게
될 것입니다.

2002년 11월부터 그 동안 1월호와 7월호에
실리던 연차 대회 메시지가 5월호와 11월호
*리아호나*에 실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살아 계신
예언자들의 말씀을 좀더 일찍 공부한 뒤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은 영감어린 가르침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정으로 인해 5월호와 11월호 *리아호나*
잡지가 약간은 늦게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는 *리아호나* 연차 대회 특집호를
이전보다는 일찍 받아 보게 될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와드나 지부 지도자들 또는
지역 배부 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말씀

최근 연차 대회의 마지막 말씀에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저는 한 해에 두 번씩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에 대해 항상 감탄합니다. ... 저는
전세계의 많은 청중들 거의 모두가 한두 가지 이상의
말씀들에 대해서 “그것은 나를 위한 말씀이었어. 내가 들어야
했던 말씀이야.”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회를 가지는 이유입니다. 즉 이 사업에
대한 우리의 간증을 강화하고, 유혹과 죄에 맞서 우리를
강하게 하며, 우리의 목표를 높이고 교회의 프로그램과
우리의 삶의 방식에 관해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다음
대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102쪽)

바로 위와 같은 이유, 즉 글로 기록된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를 제공하기 위해 *리아호나* 특집호가 출판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읽어야 할 예언자들의 말씀

수년간, 교회 지도자들은 말일성도들에게 연차 대회 메시지를 공부하고 리아호나를 각 가정에 비치해 두도록 권고했다.



“교회 회원인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관을 지킨다면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훌륭한 자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발행하는 잡지는 이러한 자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 잡지를 펼치면, 그곳에서 정규적으로 우리 자신과 가족을 이끌어 주고 영성을 고취시키는 살아 있는 예언자와 사도들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세계의 모든 회원들에게 교회 잡지 구독을 신청하고 읽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신권 지도자들이 모든 가정에서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합니다.”

대관장단:

고든 비 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1998년 4월 1일



“저는 대회 말씀에 대해 깊이 상고하면서, 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축

복을 누리도록 도울 수 있는가? 그 답은 우리가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 지지하는 분들과 총관리 직원들에게서 받은 가르침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영감으로 전한 그 분들의 말씀을 연구하고, 자주 그 말씀들을 참고합니다. 주님은 이 대회에서 성도들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워드 더블류 헨터 대관장

1994년 10월 2일



“진리와 의로움의 모든 원리들이 맹렬히 공격받고 있는 이때, 우리들은 회원들이 파괴적인 영향력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도움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회 잡지는 교회의 회원들과 그들의 친구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잡지는 그분께서 택하신 종들을 통해 주의 마음과 뜻을 전해 줍니다.”

대관장단: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1986년 1월 21일



“교회의 표준 경전 이외의 어떠한 연구서나 서적도 교회의 연차 대회에서 형제들이 전하는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잡지 ... 만큼 우리 성도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김볼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1974년 7월 1일



“우리는 교회 잡지가 우리의 복음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필수적인 도구라고 느낍니다. 교회 잡지는 교회 회원들의 신앙 강화, 영원한 복음의 진실성 선포 및 최근에 일어난 일들과 중요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회원들에게 알려 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삶이 풍성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가치 있는 기사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도 우리 백성들이 가정에서 잡지를 구독해 읽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가정이 우리의 잡지를 구독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재강조드립니다.”

대관장단:

해롤드 비 리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1972년 10월 2일

리아호나 2002년 10월 호, 제10호

22990 320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 고든 비 왕클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패러, 데이비드 비 해이트, 닐 에이 맥스웰, 라셀 앤 넬슨, 달린 에이치 욘스, 엠 라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올란드, 엔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데니스 비 뉴엔스원다

고문: 제이 캔트 줄리, 더블류 톨프 커, 스티븐 에이 웨스트

교과 과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널드 엘 나이븐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롬니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기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제니퍼 엘 그린우드

부편집인: 로저 테리

편집인 보조: 리자 앤 잰슨

편집 보조: 수잔 브렛

출판 보조: 클라트 네베커 오문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트 벤 캄펜

신입 디자이너: 세리 쿡

디자이너: 토마스 에스 차일드, 랜들 제이 픽스톤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생산: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텐슨, 데니즈 카비, 헬리 프랫, 로널드 에프 스파크스,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오너

디지털 교정 인쇄: 제프 마틴

인쇄 및 배부:

인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구독): 크리스 티 크리스텐슨

통 권: 제 439호, 제 39권, 제 10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2년 10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정동찬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의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아르메니아어, 불가리아어, 캄보디아어, 세부어,

중국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하티어,

헝가리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카리비안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시모어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밀어, 텔루구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2002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October 2002 No.10,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즐거움을 가져다 준 선교 사업 관련 기사들

2001년 리아호나 10월호(스페인어)에서 선교사에 관한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선교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전업 선교사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사 하나하나를 즐겁게 읽었고, 선교 사업을 나가겠다는 제 소망은 더 커졌습니다.

크리스천 헤레라 메자,

멕시코 이자파 타코츨라 스테이크,

후람보야네스 와드

내게 큰 감동을 준 나의 첫번째 리아호나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소망을 이미 갖고 있었지만, 리아호나 2001년 10월호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아서 즉시 선교 사업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01년 10월부터 처음으로 구독을 시작했는데 벌써 리아호나를 무척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알원 아로키아 라야 킬베르트,

인도 방갈로르 지방부,

코임바토르 제1지부

빌려 읽은 한 권의 잡지

교회에 들어온 후로 줄곧 레 리아호나(프랑스어)에 대해 들어 왔으나,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어느 날 친구에게서 그 잡지 한 권을 빌렸습니다. 그것을 읽고 저는 기쁨

과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잡지 덕분에 저는 지금 선교 사업을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르크 앙리 시몬,

아이티 레 카야 지방부,

레 카야 지부

알바니아의 애독자

저는 리아호나(알바니아어)의 애독자이며 그 안에 담겨 있는 정보, 소식, 메시지, 그리고 이야기들을 무척 좋아합니다. 이 잡지를 우리 나라 언어로 읽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저는 2001년 9월에 70세의 나이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칠 년 전에 저의 왼 팔과 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제가 병석에 있을 때, 선교사들이 저의 집에 왔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제가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는 신권 축복을 주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요셉 스미스에 관한 소책자를 주기 전까지, 저는 소망도, 임을 마음도 잃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게 줄 수 있는 임을 자료는 무엇이든 좋으니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아내는 곧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좀 더 늦게 침례를 받았지만, 이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아김 쉘후,

알바니아 티라나 지방부,

티라나 제4지부



두려워 말라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관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의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용기는 그러한 그의 자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곱 살이라는 어린 나이 때에도 두려움으로 인해 결정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걸린 발진터푸스라는 병은 열병 포진으로 발전되어 그의 왼쪽 다리까지 깊숙이 파고 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감염을 막고 나머지 다리를 구하기 위해서 의사들은 다리를 깊이 절개하여 감염된 여러 뼈 조각을 제거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마취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요셉은 오직 자신을 붙잡고 있던 부친으로부터 위안을 얻으며 그 고통스러운 수술을 견디어 냈는데, 이 때 어린 요셉의 훌륭한 자질들은 이미 싹트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여

제가 겪었던 어떤 일로 인해 개인적으로 예언자 요셉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년이었을 적에 저는 밭과 목초지에서 산책을 하거나 개울이나 연못에서 수영을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부친께서는 사냥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여름에 우리 가족은 유타의 완십 근처로 소풍을 갔습니다. 우리는 강둑을 따라 자라난 나무들 사이에 천막을 쳤습니다. 부모님의 친구분 몇몇과 그 가족들도 함께 가서 우리 가까이에 천막을 쳤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친구들과 저는 양들이 먹어야 할 부

자신을 붙잡아 주었던 부친만이 유일한 위안인 상황에서, 용감한 어린 요셉 스미스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견디어 냈습니다.

드러운 새싹들을 먹어 치우는 해로운 들짐승들을 사냥하러 갔습니다. 22구경 장총을 가지고 갔는데, 저는 그만 가까운 거리에서 오발된 총알을 무릎 위에 맞고 말았습니다. 총알이 제 다리를 관통할 때 뜨거운 부지깽이 같은 것이 제 살을 뚫고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 총알이 관통한 구멍을 통해 다리에서 따뜻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사고를 알리기 위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와 다른 분들이 응급 조치를 하고 출혈을 멈추게 한 다음, 가족용 차로 저를 옮겨서 가장 가까이 사는 코울빌의 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저를 수술대 위에 누이고 상처를 조심스럽게 검사한 의사는 먼저 총알이 제 다리를 관통하면서 낸 구멍을 소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사가 그 곳을 어떻게 소독할 것인지를 알았을 때 저는 두 가지가 두려웠습니다. 고통이 두려웠고 또한 제가 울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제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께 보여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아프더라도 울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의사는 총구를 청소할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막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막대의 한 쪽 끝에는 작은 가제를 끼워 소독액에 적실 수 있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의사는 막대를 가져다가 제 다리에 집어 넣었습니다. 막대가 다리의 다른 쪽으로 나왔을 때 의사는 다른 가제로 바꾸어 넣고는 새로운 살균제를 묻혀 다시 잡아당겼으며, 이러한 과정을 서너 차례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아팠으며 특히 뼈 근처를 지날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아 주셨으며, 저는 이를 악물고 눈을 감고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아

버지께서는 저의 소리 없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고, 또 제가 울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처는 빨리 완치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상처로 인해 고통을 받은 적이 없었고, 심지어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운동을 할 때도 문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예언자 요셉 또한 다리에 고통스런 병을 앓았지만, 치료를 받아서 훗날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안 이후로 그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에서 문제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저는 울면서 위안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에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우리가 슬픔과 고통으로 자신을 마비시켜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들지만 않는다면 인생의 짐의 무게가 그토록 무겁게만 보이지 않는다는 교훈을 저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는 행복해지는 법과, 그분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미국과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2001년 9월 11일의 테러 공격에 의해 두려움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세계 역사에서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니파이인의 역사를 볼 때, 테러와 살인은 개다이엔톤의 전략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새 천년에 자행된 이러한 테러는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기 위해 교묘하게 계획된 것이었으나,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연이은 탄저균 공포는 비행기 충돌처럼 확연히 눈에 드러나는 일이 아니었기에 보다 심리적인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일어나는 포도상구균 감염과 같은, 세상에 더 반연한 위험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타거나 길을 건너는 일과 같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위험들은 더 잘 받아들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이며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 한 우리를

이길 권세를 지닐 수 없습니다. 그는 진실로 겁쟁이이며, 우리가 확고하다면 물러설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고전인 *비밀의 화원(The Secret Garden)*에서 저자인 프랜시스 호드슨 버넷트는 고아인 매리 레녹스가 아저씨의 집으로 가 그 곳에서 은둔하고 있던 사촌인 콜린을 만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그는 살아 있으면 꿈추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무기력하게 되었고 곧 죽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매리 레녹스는 어떤 일에도 관심을 갖지 않기로 결심한 외로운 아이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아저씨의 소유지에서 산책을 하다가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정원의 입구에서 우연히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정원에 들어간 이후 그녀는 자신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 정원을 지난날의 웅장한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해 일하면서 그녀는 삶에서 즐거움을 얻는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콜린은 매리의 설득으로 그의 음침한 방에서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콜린이 자기 방에 처박혀 자신의 두려움과 약점, 그리고 그를 쳐다보는 사람들에 대한 중요만을 생각하며 자기 등에 있는 혹과 일찍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매시간 몰두해 있을 때, 그는 햇살과 봄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반미치광이 상태의 심기증 환자와 같았으며, 노력하기만 한다면 좋아질 수 있고, 자신의 두 발로 설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새롭고 아름다운 생각이 해묵은 추한 것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을 때, 새로운 인생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의 피가 건강하게 혈관을 흐르기 시작했으며, 힘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 불쾌하고 실망스런 생각이 마음 속에 들어올 때 그것들을 상쾌하고 단호하며 용기있는 생각으로 바꾸어야겠다고 즉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보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한 곳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애야, 장미를 손질하는 곳에는
영정귀가 자라날 수 없다.*’”



그 정원을 지난날의 영광스런 모습으로 되돌리려 노력하면서, 비밀의 화원에 나오는 등장인물 메리 레녹스는 정신적으로 새로이 충전되는 경험을 합니다. 사촌인 폴린은 메리의 설득으로 음침한 방에서 정원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에게는 힘이 밀려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마태복음 10:30~31)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 사항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를 믿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려움과 실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이러한 일들은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의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시면서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이 모든 일은 네게 경험이 되고 네게 유익이 되는 줄 알지어다.”(교리와 성약 122:7)

때때로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유능한 종으로 만들기 위해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주님께서서 우리로부터 그릇된 자만과 헛된 야망을 제거하고, 제자의

책임을 가르치고자 하신다는 점을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그분의 눈은 우리 위에 계시며 하늘에 계신 영원한 부모로서 우리를 지켜 보고 계십니다. 시련이 올 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 확실히 오겠지만, 자기 연민의 심연에 빠지지 말고, 누가 지휘하고 있는지를, 곧 그분이 인생의 모든 폭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릇된 결정을 하지 맙시다.

네덜란드의 해변에서 지독한 폭풍을 만나 조난을 당했던 한 배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선의 선원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노로 젓는 보트를 타고 나갔습니다. 큰 파도가 쳤으며, 노를 젓는 모든 사람들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두운 밤에 조난 당한 선원들에게 이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결국 난파선까지 노를 저어 가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구조 작업으로 모든 선원을 구조하기에는 노로 젓는 보트가 너무나 작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이 조난 당한 어

선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구조선에는 한 명이 더 탈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조선이 뒤집힐 위험성은 매우 높았습니다. 구조 대원들이 해변에 돌아왔을 때 수백 명이 그 우울한 밤에 그들을 안내해 주기 위해 횃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조 대원들은 폭풍과 파도와 비를 헤치고 나아가려고 애를 쓰느라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에 다시 구조하려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해안 경비 대장은 두 번째 구조 작업을 위한 지원자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선 자들 중에는 한스라고 하는 19세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방수복을 입고 자기의 어머니와 함께 해변에 나와 구조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스가 앞으로 나서자 어머니는 겁에 질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제발 나가지 말아라. 네가 네 살이었을 때 너의 아버지가 바다에서 돌아가셨고, 네 형 피트도 바다에서 실종되었다고 보고된 지 벌써 석 달이 넘었다. 넌 내게 남아 있는 유일한 아들이란다.’

“그러나 한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것을 해야만 할 것 같아요. 이건 제 의무입니다.’ 한스가 보트를 타고 노를 저으며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을 때 그의 어머니는 흐느껴 울면서 몸도 가누지 못한 채 해변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시간 이상이나 큰 파도가 밀어 닥치는 바다에서의 투쟁이 있는 후에(한스의 어머니에게는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보트가 다시 보였습니다. 해안 경비 대장이 소리지르면 들을 수 있을 만큼 구조 대원들이 해변 가까이 다가왔을 때, 경비 대장은 입에 나팔 모양으로 손을 대고는 폭풍 속에서 힘차게 ‘그 사람을 구조하였소?’ 라고 외쳤습니다.

“그 때 횃불을 들고 바다를 비추던 사람들은 노를 젓는 자리에서 일어서는 한스를 보았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저의 형 피트라고 어머니께 말해 주세요!’”²

다른 어느 날 다른 바다에서 고대의 사도들이 배에 있었는데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마태복음 14:24~27)

두려움 때문에 그릇된 결정을 하지 맙시다. 안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필멸의 시험 기간을 헤쳐 나가는 동안 우리를 인도할 개인적인 영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의 속삭임과 위안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항상 열려 있도록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

주

1. *The Secret Garden*(1987), 338~339쪽.
2. 제이콥 디야거, “여러분은 누구를 구원할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53~54쪽.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이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의 예가 아래에 나와 있다.

1. 용기 있는 한 사람에게 대해 묘사해 달라고 가족들에게 부탁한다. 가족들에게 돌아가면서 어린 소년 시절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파우스트 부대관장의 이야기를 소리를 내어 읽게 한다.

2. 가족들에게 한 식물을 보여 주고 훌륭한 정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대로 말해 달라고 부탁한다. “장미를 손질하는 곳에는 엉겅퀴가 자라날 수 없단다.”라는 말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가?

3. 이번 호의 7쪽에 있는 그림을 가족들에게 보여 준다. 그들이 그 배에 있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인지를 묻는다. 마태복음 14장 22~27절을 읽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짐으로써, 안심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때에 관해 이야기한다. 가족들도 비슷한 경험을 나눌 수 있다.

고대의 사도들이 배에 있었는데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오셨습니다.





영적인 영거인



제가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 곳에는 악어가 없지 않습니까?”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심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저는 항상 동물과 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게 되었을 때는 새와 동물에 관한 책을 찾았으며 그것들에 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대가 되었을 때는 거의 모든 아프리카 동물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모양이 거의 비슷하게 생긴 영양인 클립스프링어와 임팔라, 또한 겐스복과 남아프리카 영양도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늘 아프리카에 가서 그 동물들을 보고 싶어했는데 드디어 그 기회가 왔습니다. 패커 자매와 저는 임무 지명을 받아 남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우리는 칠일 동안 여덟 개의 예배당을 헌납했는데, 그것은 매우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선교부장은 9월 10일에 특별한 일정이 없었습니다.(그 날은 우연히도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남아프리카에 있는 요하네스버그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얼마 안 가면 동물 보호 구역이 있습니다. 차는 제가 빌렸으니 내일 장로님의 생일에는 아프리카의 동물 구경이나 하시죠.”

여기서 아프리카의 그 동물 보호 구역이 매우 특이하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곳에서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고 동물들은 자유로이 돌아다닙니다. 달리 말하자면 보호 구역이 있고, 공원 방문자들은 밤에 투숙을 해서 날이 썰



악어

때까지 높은 담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방문자들은 차를 타고 주변을 돌아다닐 수는 있으나 차 밖으로 나가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날이 어두워진 한참 후에야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통나무집으로 향했습니다. 샛길을 찾아 좁은 길을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우리 차의 엔진이 멎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찾아내어 엔진에 무엇이 잘못되었나를 알아보기 위해 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전등으로 진창길 바닥을 비추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사자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차 안으로 되돌아왔으며 차

안에서 그 날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보호 구역에서 늦게 떠난 어떤 유조차 운전수를 만나 구조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우리를 다시 보호 구역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동차도 없었으며, 늦은 오후까지는 대체 차량을 받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공원에서 하루는 그렇게 끝나 버렸으며 제게 있어서는 생애의 꿈이 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그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비단 강 속에 뿐만 아니라 공원의 도처에 악어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 젊은 순찰 대원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제가 아프리카 새를 많이 알고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는 우리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보호 구역에서 20마일(32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웅덩이에 전망대를 새로 짓고 있는데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안전하기는 합니다.”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그 곳에 모셔다 드리지요. 그곳에 가시면 아마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시는 것보다 더 많은 동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그 전망대까지 데려가는 길에 그는 사자를 보여 주기 위해 차를 넝쿨 숲으로 돌려 물었습니다. 그 앞에서 열 일곱 마리의 사자가 배를 깔고 자고 있었으며 그는 그 가운데로 차를 몰아 갔습니다.

우리는 웅덩이에 차를 세워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 매우 가운 절기여서 물은 그리 많지 않았고, 진흙 탕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코끼리가 부드러운 진흙 속으로 걸어 들어가자 그 발자국 자리에 물이 고였으며 동물들은 코끼리 발자국에 고인 물을 마셨습니다.

영양은 특히 조심성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진창 웅덩이에 왔다가는 재빨리 돌아서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변에서 사자를 볼 수 없는데도 영양들이 왜 물을 마시지 않느냐고 저는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이 오늘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악어 때문이죠.”

다행히도 이미 물린 사람들을 위한 영적인 응급 처치약이 있습니다. 와드의 감독은 이러한 응급 처치에 대한 책임을 지닌 인도자입니다. 그분은 또한 이 영적인 악어에게 도덕적으로 심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여 완전히 낫도록 보살펴 줄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해 다른 진창 웅덩이가 내려다보이는 뚝 위로 차를 몰고 올라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를 직접 보십시오.”

물이 조금 고여 있는 진창과 조금 떨어진 곳에 조심스레 서 있는 동물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창 속에 숨어 목이 바짝 마른 동물이 무심코 물을 마시러 오기를 기다리

저는 그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무슨 문제입니까?” 그는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악어 때문이라니까요.” 저는 “말도 안 됩니다. 도대체 악어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있다면 누구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동물에 관해 스스로 제법 안다고 여기는 외국인들 놀리고 있는 것이라 느낀 저는 마지막으로 진실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당시의 제가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저는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게다가 코끼리 발자국에 악어가 숨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는 악어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그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을 기꺼이 들으려 하는 것을 보고 그는 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비단 강 속뿐 아니라 공원의 도처에 악어들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근처 어딘가에 악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안내원은 제가 웅덩 받아야 할 대우보다 더 친절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악어 때문이죠”라는 그의 첫 대답을 믿지 않고 아는 척하는 저에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나가서 직접 살펴보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악어가 분명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었으므로 저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나가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오만한 생각은 정말 치명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내원은 충분한 인내심을 갖고 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는 분들과 이야기할 때 당시의 저보다 더 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은 저에게 좋은 것이 아니었으며 여러분에게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별로 자랑스런 일이 아니었기에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사실 전 그 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인생에서 여러분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물 웅덩이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고 악어를 주의하라는 경고의 음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갈갈이 물어 뜯는 커다란 회색 빛의 악어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위치에 능숙한 아프리카의 악어들보다 더

위험하고, 더 현혹적이고, 눈에도 잘 띄지 않는 영적인 악어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영적인 악어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듭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까지 파멸시킵니다. 그러한 악어들에 대해서는 경고가 주어져야 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영적인 악어로 오염되지 않은 물 웅덩이는 거의 없습니다.

또 한 번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 저는 다른 공원의 안내자와 이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한 입에 두 동강내 버릴 수 있을 정도로 큰 악어가 코끼리 발자국 속에 숨을 수 있다고 나에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비참한 일이 생긴 장소를 보여 주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어느 청년이 그 호텔에서 한동안 일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운동화도 잠기지 않을 만큼 얇은 물 웅덩이 건너에 무엇이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 보호 구역 울타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안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채 두 발자국도 떼어 놓기 전에 악어가 나와 그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우린 그를 구조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많은 지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거의 맞지 않는 일처럼 보입니다. 젊을 때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어떤 것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안내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생존 여부를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악어에게 잡혀 먹혔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가장 끔찍한 일은 아닙니다. 괴물 같은 악어에게 먹히는 것보다 더 끔찍한 도덕적인, 영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 이따금 우리가 그 권고의 말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러한 일의 발생을 막아 주는 안내자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젊을 때 부모와 교사와 지도자의 권고를 들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훌륭한 안내자인 성령의 속삭임에 따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계시입니다. 영적인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안내자가 제게 경고해 주었던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여러분은 앞에 도사리고 있는 영적인 악어에 대해 경고해 주는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미 물린 사람들을 위한 영적인 응급 처치약이 있습니다. 와드의 감독은 이러한 응급 처치에 대한 책임을 지닌 인도자입니다. 그분은 또한 이 영적인 악어들에게 도덕적으로 심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여 완전히 낫도록 보살펴 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이러한 경험은 제게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상기시켜 주는 또 하나의 계기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따릅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간증 드립니다. 그분께서는 살과 뼈로 된 육신을 갖고 계시며, 이 교회를 이끄시며, 그분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인도를 받아 그분의 면전에서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

1976년 연차 대회 말씀

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외설물의 함정을 피함

갈라진 틈의 가장자리로 가서 실족하는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위험에서 멀리 떨어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겠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과 동료들이 눈 덮인 산에 올랐다. 이 산은 여러분과 친구들이 시도했던 산 중에서 가장 오르기 힘든 산이다. 정상 근처에 이르자 깊이 갈라진 틈이 앞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 번 떨어지면 흔적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틈이다. 그저 가까이 가서 보기 위해 미끄러운 가장자리로 걸어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또 여러분 뒤에 오는 친구들에게 경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게 할 것인가?

외설물은 그런 갈라진 틈과 같은 것이다. 그것이 지닌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는 그 함정에 빠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스런 것인지를 깨닫지조차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세 명의 말일성도 젊은이들이 익명으로 자신들의 견해를 나

누었다. 편의상 그 이름을 블레어, 리안, 릭으로 부르기로 한다. 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함정을 피하는 데 그들의 경험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과 유사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에서 빠져 나오는 방법에 관해 조언을 주고 있다.

블레어: 저는 교회 안에서 성장했으며 간증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일들이 제 생활에 있습니다. 일곱 살 때 저는 이웃의 한 십대 청소년의 방 벽에 걸려 있던 음란 포스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어떤 인상을 남겼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생각들로 인해 저는 벗어날 수 없다고 느껴지는 합당치 못한 습관으로 빠져 들게 되었습니다.

리안: 열두 살 때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와 한 무리의 동네 소년들이 컴퓨터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 외설물을 보고 있지?”

그들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너도 이리 와서 한 번 봐.”

그 때가 제 인생에서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곧 집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더 많은 사진을 찾았습니다.

릭: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할 정도로 깊이 빠져 들 때까지는 보통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호기심이 있었고, 외설물을 접하고 있는 다른 학교 친구들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내가 그것을 접하는 것이 뭐 그리 문제가 되겠느냐는 생각으로 제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그저 보는 것인가, 빠져 드는 것인가?

외설물은 처음에 호기심을 자극한다. 어쩐지 그저 보기만 하는 것은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그저 상점에 가서 보기만 하지 그것을 사지는 않

있습니다!

는다. 그러나 외설물은 거의 모든 상품이 있는 큰 상점과 같다. 그 상점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보라는 권유가 끝도 없이 이어진다. 그리고 호기심은 결코 만족되지 못한다.

인생에는 방울뱀, 또는 버려진 굴착기나 약물과 같이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안다면, 그것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파티를 떠나거나 컴퓨터를 끄게 될 것이다.

실제로 외설물에는 “그저 보는 것”뿐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외설물을 보는 것은 성적인 느낌을 유발한다. 우리는 그러한 쾌락적인 느낌에 쉽게 사로잡힐 수 있는데, 특히 그것들이 스트레스나 걱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처럼 보일 때 그렇다. 그리고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과 마찬가지로 끊기 어려운 중독증의 순환이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다.

롬: 호기심이 관심이 되고, 그 관심이 강한



위험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

성적인 생각을 자극하는 것들을 일부러 보는 것은 위험하고도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환경은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것들이 종종 합법적이고 또 흔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않는 것이 때때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다면 이러한 유혹과 그 어떤 유혹이라도 견디어 낼 힘을 키우게 될 것이다.

다음은 외설물이라 불리는 치명적인 영적 낭떠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다.

1. 외설물을 식별한다. 간단한 정의는 이렇다. 외설물이란 품위 없고 저속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성적인 느낌을 자극하는 모든 오락물이다. 따라서 정규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광고조차도 외설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성적인 느낌을 갖게 한다면 그것들을 피해야 한다.

2. 정서적인 연결을 끊는다. 중독적인 행위와 스트레스, 걱정과 우울함과 같은 정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스트레스와 걱정을 느끼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외설물이나 다른 파멸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직접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기도, 경전 공부, 운동,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 규칙적인 교회 모임 참석 등이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다. 혼자서 해결하기엔 문제가 너무 커 보일 경우에는 부모님, 교회 지도자, 또는 신뢰할 만한

어른이 도움이 될 수 있다.

3. 인터넷을 현명하게 사용한다.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면 부모에게 요청하여 유해한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는 장비 또는 서비스를 설치한다. 그러나 그러한 차단 수단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수단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유일한 조절 수단은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다. 컴퓨터를 여러분의 침실 밖에 놓는다. 즉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컴퓨터를 놓는 것이다.

4. 현대의 요셉이 된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부도덕한 상황에 몰아넣으려고 했을 때 요셉이 했던 행동을 기억해 본다. 요셉은 "밖으로 내[갔다]"(창세기 39:12) 달리 말하면 그는 달아났다.

여러분이 외설물을 접하게 되었을 때에는 컴퓨터의 마우스를 클릭해서 즉시 그 사이트에서 빠져 나오거나, 텔레비전의 채널을 바꾸거나 친구의 집에서 재빨리 나오으로써 그 상황을 즉시 떠난다.

5.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도움을 얻는다. 영적인 양식의 부족으로 영이 약해지지 않도록 한다. 기도, 경전 공부, 상호 향상 모임, 세미나 그리고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같은 의로운 영향력들로 이루어진 꾸준한 식이 요법은 가는 곳마다 영적으로 위험한 낭떠러지가 있는 세상을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힘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다. □



습관으로 발전됩니다. 저는 곧 중독이 되었고, 학교에서 집으로 오자마자 곧장 컴퓨터로 가서 여러 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있는 시간도 없어졌습니다. 학업,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의 영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에서 영의 속삭임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 시기에 저는 점점 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저의 영혼은 굶주렸으며, 제가 먹었던 유일한 음식인 외설물은 제게 어떤 영양분도 제공해 주지 못했습니다. 자신에 대해 낙담하게 되었으며, 기본 전환을 위해 외설물에 보다 깊이 파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설물들은 제 기분을 더욱 망쳐 놓곤 했습니다.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가

죄책감, 두려움, 우울은 외설물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감정으로, 죄책감은 잘못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은 비밀이 알려질까 봐 무섭기 때문에, 우울은 더 이상 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게 된다. 가족, 친구, 교회 지도자, 그리고 주님과과의 관계도 손상된다.

블레어: 교회, 학교, 그리고 모든 곳에서 자신감이 줄어들었습니다. 매우 외롭고, 어색하고, 함당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 차례 느꼈습니다. 한 소녀가 저를 좋아하면,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롭: 그 시간 동안 교회를 계속 다닌 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저활동이었

습니다.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계속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로잡혀 있던 생활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일매일, 한해 한해가 다르게 저의 모습이 변해 가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무감각해지고 마음에 감동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감독님,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속에서 개인적인 불안정과 영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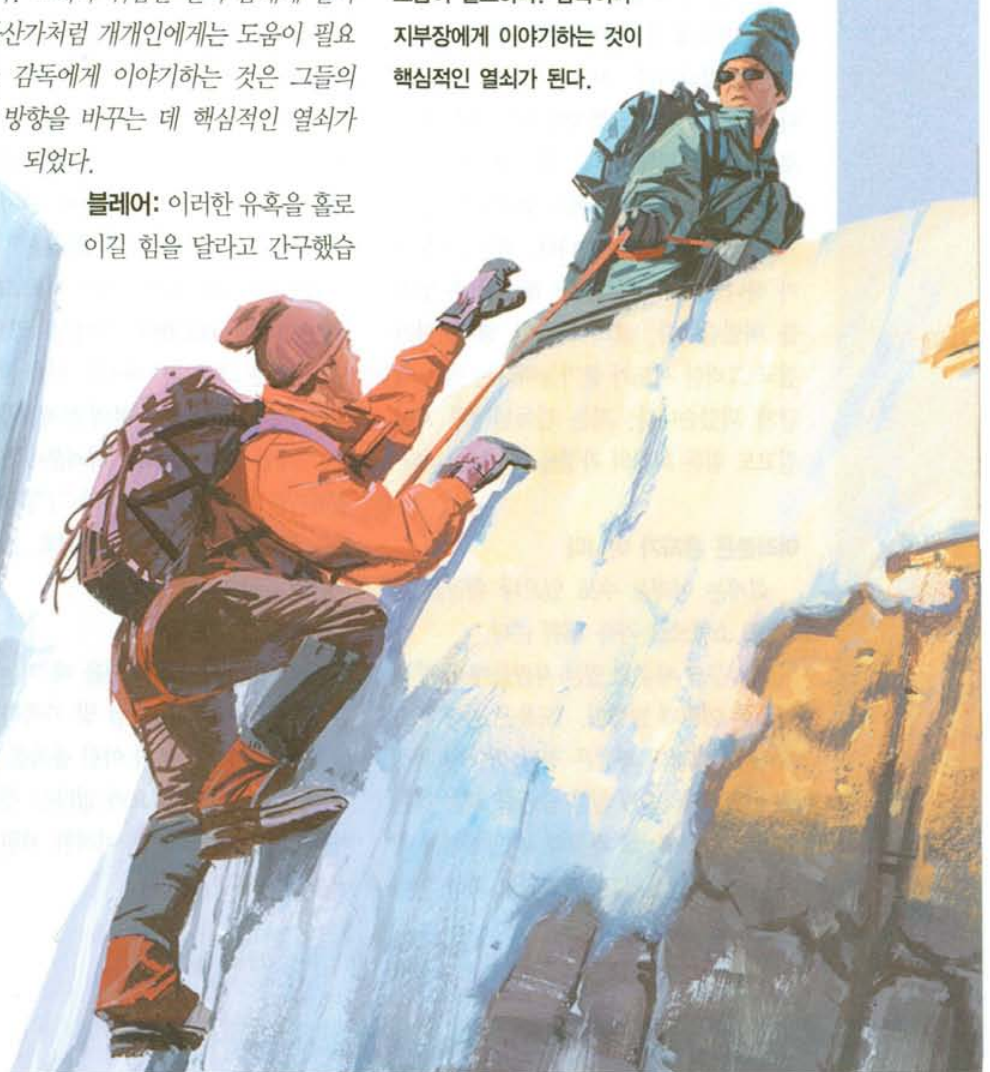
이 젊은이들은 외설물 중독과 싸우면서 모두들 그것을 혼자서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위험한 절벽 틈새에 떨어진 등산가처럼 개개인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 감독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 핵심적인 열쇠가 되었다.

블레어: 이러한 유혹을 홀로 이길 힘을 달라고 간구했습

니다. 저는 기도, 경전, 깨끗한 생각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의 목록을 적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제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감독님에게 고백해야 한다는 생각은 저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때 말씀드리는 것이 보다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때는 오지 않을 것임을 저는 결국 깨

많은 사람들이 외설물 중독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한 낭떠러지에 떨어진 등산가처럼 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 감독이나 지부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





예언자의 경고

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각고의 노력을 이미 알고 계시고 또 기도드릴 때 그분께 편안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하나님의 종을 만나 뵙고 말씀드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고백을 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나니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확신과 평안이 느껴졌습니다.

외설물을 보고 있다면, 부도덕적인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이 아니다. 룬은 자신이 성전에 가거나 선교 사업을 나가기에 합당하지 않음을 깨달은 것에 관해 말했다.

룬: 저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겸손히 머리 숙이고 저의 힘을 넘어서는 큰 힘을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매일 밤 기도했으며, 마침내 감독님께 말씀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해야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일을 해결할 수 있으며 또 어느 누구도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그 문제가 하나님과 저 사이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다가 결국 그러한 시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독님에게 가서 길고도 힘든 회개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회개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위안을 주고 또 소망으로 가득 채워 준다.

외설물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해 한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도움은 항상 존재합니다. 회개의 과정은 정말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좋지 않은 습관을 깨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의 각 단계에서 작은 승리는 인정되고, 강화되고 축하 받아

야 합니다. 저와 그런 문제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더 이상 문제를 숨기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런 문제를 혼자서 직면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한 전임 감독은 이렇게 설명한다. “저의 가족을 제외하고, 용서와 평안을 구하며 상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와드의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보다도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용기와 올바르게 되자 하는 소망을 존경합니다. 그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그분들이 깨끗해지고 다시 온전하게 될 때 저는 기쁩니다. 그 후에 저는 그분들을 과거에 죄를 졌던 사람으로 결코 바라보지 않으며, 단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로 볼 뿐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스코트 장로는 이렇게 권고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점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도움을 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음”, 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45쪽)

블레이어의 현재 생활

저의 이중 생활을 멈췄을 때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감독님 및 가족과 함께 짐을 나누는 것은 제가 이런 중독을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러한 지원 체제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남 여러분에게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이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학교에서 저속한 대화를 나누지 마십시오. 음탕한 농담을 하지 마십시오. 인터넷에서 외설물을 찾고자 여기저기 기웃대지 마십시오. 추잡스런 외설물 듣고자 장거리 전화 번호로 전화하지 마십시오. 외설물 담은 어떠한 비디오라도 빌려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성적 충동을 유발하는 것들은 한 마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중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듯이 외설물을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에 못지 않은 파멸을 부릅니다. 습관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을 탐닉하는 사람은 결코 혼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중독성을 가진 해약입니다.

“외설물 제작자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50억불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기법을 사용하여 ...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만한 사람들을 유혹하여 결국에는 그들을 파멸시키고 맙니다. 그것들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저는 창남 여러분에게 결코 그런 것들을 탐닉하지 않기를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런 것들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장차 결혼하게 될 여성에게 어울리는 합당한 생활을 함”, 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49쪽) □

제 청소년기를 덮고 있던 한 가지 문제가 하루 만에 극복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길고도 힘들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것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 또 속죄를 이해해 가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제가 매일 자신감과 자긍심을 키우는 데 필요한 힘을 제게 주시고 계십니다.

리안의 현재 생활

저는 감독님에게 정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제게 말을 건넬 때도 정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 함께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집에 있는 인터넷을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곧 16살이 되는데 외설물이 제 생활을 지배하지 않도록 결정을 내린 것이 기쁩니다. 제 자신에 대해 기분이 좋고 전보다도 청녀들에 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의 도움으로 저는 지금 성전에 가고, 선교 사업을 나가고 또 언젠가 훌륭한 결혼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롭의 현재 생활

나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진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권 지도자들은 제가 선교사로 봉사하기에 합당하다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느낌은 성전에 가고 또 제가 깨끗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10대 시절 내내 느끼고 싶었던 영이 제 가슴과 생활에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 속죄에 대해 크나큰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은 저를 과거의 생활로 돌이키려고 아직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법을 서는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알고 있으며 그분을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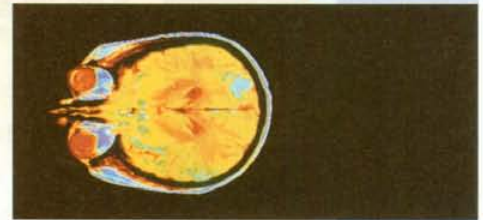
여러분의 생활은?

외설물과 관련된 문제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가능한 한 그것에서 멀리 떨어지

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외설물, 또는 합당하지 않은 습관과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의 감독이나 지부장에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며,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며, 속죄의 권세가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도록 도울 수 있다. 구세주와 그분의 종들의 도움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은 깨끗하게 되고 자신감을 찾고 또 모든 면에서 합당하게 될 수 있다. □

또 하나의 약물?

외설물은 강력한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두뇌 스캔 기술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는 외설물이 약물들에 의해 야기되는 것과 유사한 물리적 및 화학적 변화를 두뇌에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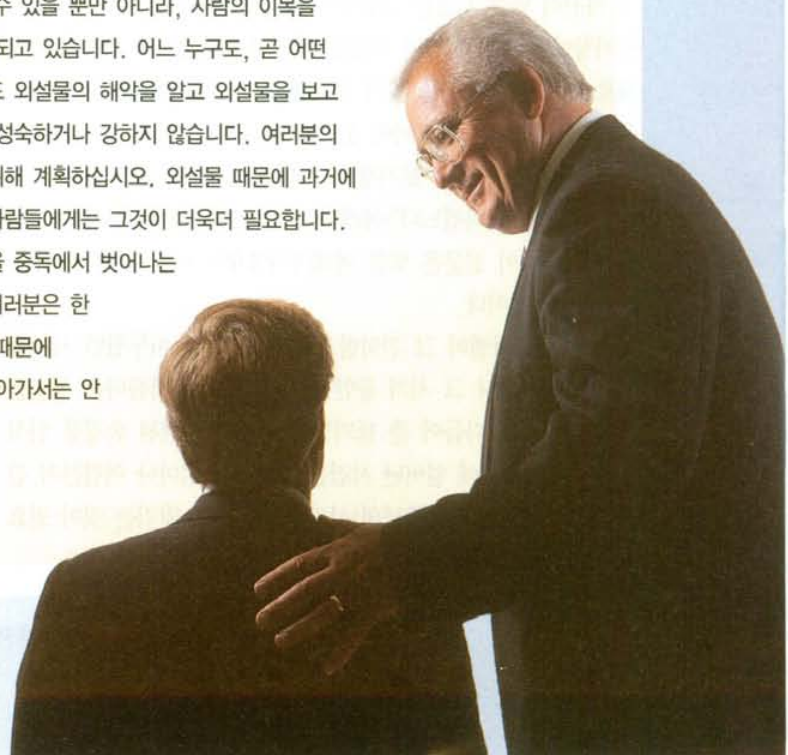


두뇌 스캔 사진, 포토 디스크

위험을 피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먼저 외설물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독되어 있다면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맨 먼저 찾아보아야 할 사람은 여러분의 감독이나 지부장입니다. 그분은 구세주의 속죄와 치유의 권세를 여러분의 생활에 가져오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여러분이 필요할 때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외설물은 쉽게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켜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곧 어떤 어른 또는 귀한 선교사도 외설물의 해악을 알고 외설물을 보고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성숙하거나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 계획하십시오. 외설물 때문에 과거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것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



예레미야: 토기장이의 진흙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의 생애를 부드럽게 조형하신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각자의 생애를 어떻게 다듬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진 에이 티판 장로
참심인 지역 관리 역원

예레미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는 높이실 것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는 두려움 없이 주님을 위해 봉사했다. 하지만 예언자 예레미야는 영혼의 고통을 많이 겪었다.

40년 이상에 걸친 예레미야의 예루살렘 성역 중 초기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명하셨다.(예레미야 18:1~2 참조) 그는 발로 녹로를 돌리면서 손으로는 한 덩어리의 젖은 진흙을 그 위에 놓고 일하는 토기장이를 지켜보았다. 토기를 만드는 일은 문명화 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술 가운데 하나이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자신이 만들고 있는 그릇에서 결점을 발견하는 것을 보았다. 토기장이는 만들고 있던 그릇을 그의 손으로 뭉그러뜨리고 다시 새로운 그릇의 모양을 빚기 시작했고, 이것은 예레미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예레미야 18:3~4)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예레미야 18:6)라고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셨다. 이 질문은 또한 예레미야에게도 어떤 의미를 잘 전해 주었을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이 그 간악함으로 인해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본 예언자였으나 그 시기 동안 자신의 성품을 아름다운 예술품 같이 훌륭하게 다듬어 준 토기장이 주님의 숙련된 손길을 인식했다. 그의 생애에 일어난 사건들은 인생이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우리의 온 생애를 주님의 사랑스러운 손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봉사의 부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3마일(5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아나돗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 힐기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예레미야 1:1) 한 명이었다. 예레미야가 아직 어렸을 적에 주님께서는 그를 예언자로 부르셨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예레미야 1:7) 예레미야는 처음에 그에 대한 주님의 신뢰에 이렇게 버티려 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다”(예레미야 1:6)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잠재력을 알고 계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예레미야 1:5)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기와 장소에 맞춰 필멸의 세계로 오도록 우리를 택하셨다. 그분은 가정이나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봉사의 부름을 통해 우리를 다듬을 수 있다. 아내와 내가 피지 수바 선교부를 감리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러한 원리에 대해 더 큰 이해를 갖게 되었다. 우리는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였는데, 아내가 특히 큰 부담을 갖고 있었다. 아내는 성별 받을 때 이 은사에 대해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 아내는 집에서 그리고 선교사들과 함께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했다. 곧 아내는 피지, 바누아투, 키리바시에서 가진 선교사 지역 대회에서 선교사들에게 영어로 말할 수 있었으며, 다음에는 뉴칼레도니아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에게 프랑스어로 가르쳤다. 아내는 주님께서 자신을 두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라고 부르셨다고 느꼈다. 따라서 아내는 두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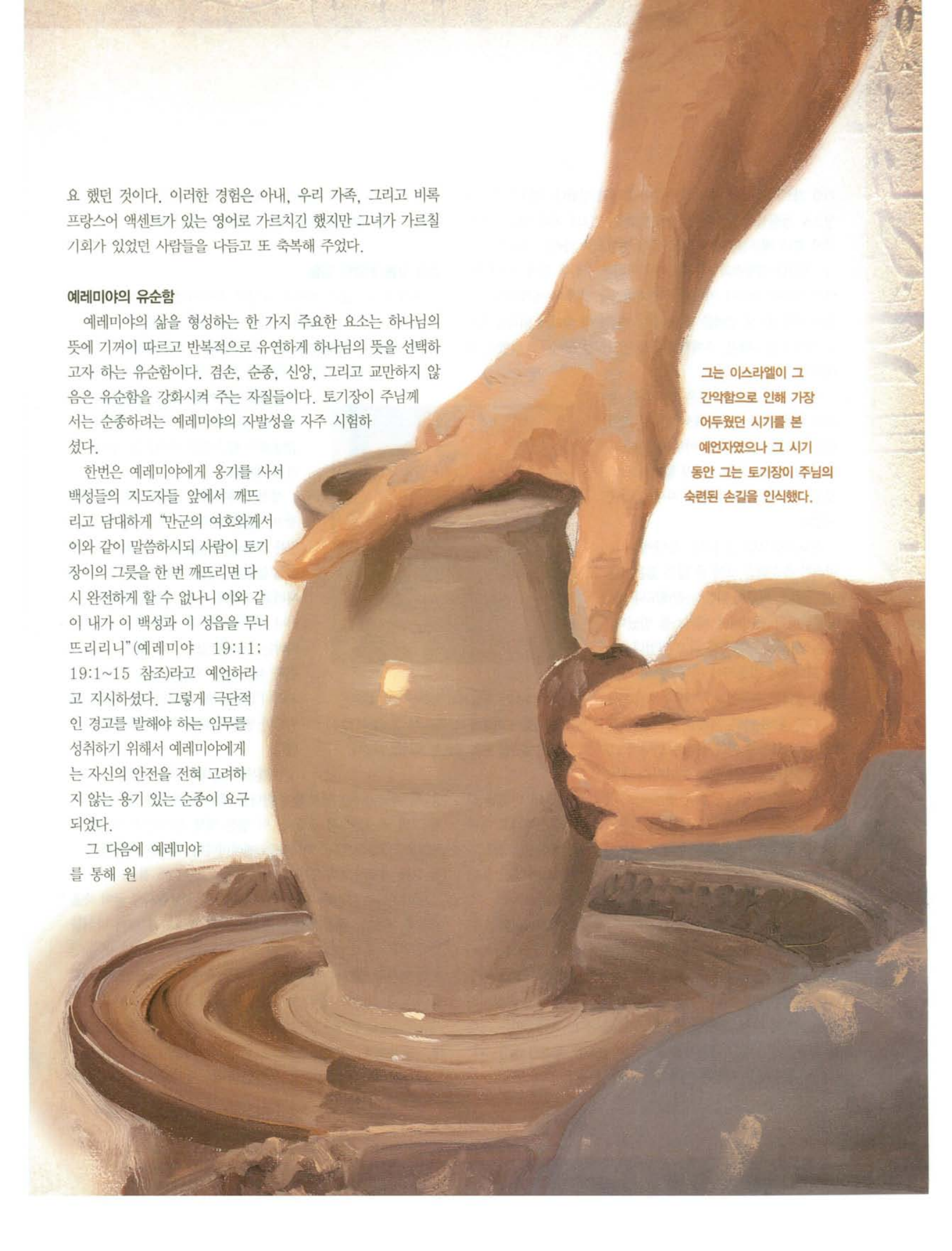
요 했던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아내, 우리 가족, 그리고 비록 프랑스어 액센트가 있는 영어로 가르치긴 했지만 그녀가 가르칠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을 다듬고 또 축복해 주었다.

예레미야의 유순함

예레미야의 삶을 형성하는 한 가지 주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따르고 반복적으로 유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자 하는 유순함이다. 겸손, 순종, 신앙, 그리고 교만하지 않음은 유순함을 강화시켜 주는 자질들이다. 토기장이 주님께 서는 순종하려는 예레미야의 자발성을 자주 시험하였다.

한번은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사서 백성들의 지도자들 앞에서 깨뜨리고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예레미야 19:11: 19:1~15 참조)라고 예언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렇게 극단적인 경고를 발해야 하는 입무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는 자신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용기 있는 순종이 요구되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통해 원



그는 이스라엘이 그 간악함으로 인해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본 예언자였으나 그 시기 동안 그는 토기장이 주님의 숙련된 손길을 인식했다.

리를 가르치기 위해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예레미야는 빗장으로 동물들에게 씌우는 멍에를 만들어 그의 목에 매달고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면전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커다란 영향력과 권력을 지닌 이러한 사람들 앞에 선 예레미야의 모습은 얼마나 기이한 구경거리였을 것인가! 예레미야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멍에를 멘 소 같이 바벨론의 왕에게 머리를 숙이고 섬기지 않는다면, 주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예레미야 27:1~11 참조)

이 사건과 또다른 많은 경우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별나고, 인기 없고 어리석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할 만큼 유순한 자세를 갖게 되었다.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는 동안에 나는 이러한 유순함을 보여 준 많은 젊은이들을 만났다. 처음에 나는 뉴칼레도니아를 방문하다가 올리버 페커스를 만났다. 그는 24세로 군복무를 하고 있었다. 그는 교회에서 활동적이 아니었으며 세상적인 생활을 추구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의 요청에 따라 우리는 만나서 그의 축복사의 축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자신을 낮추어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듬어 주시도록 하겠다고 결심했다. 곧 그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으며, 우리 선교부에서 가장 유능한 장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는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으며 최근에 타히티 성전에서 결혼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결정들도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이었던 휴더블류 피노크 장로(1934~2001)의 표현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순함과 소망을 잘 보여 주는 것이어야 한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잘못을 범하였을 때, 우리는 손상시킨 것을 취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잘못 만들었다고 만들기를 포기하고 진흙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절망하고 자신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

리의 과제는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고, 현재 자신이 가진 것과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통 받았던 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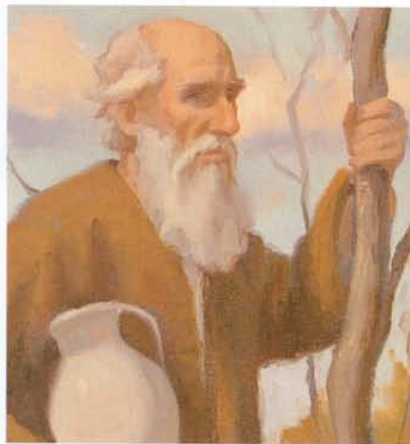
예레미야는 많은 환란을 보았던 사람이었다.(예레미야 애가 3:1 참조) 사실 주님께서는 그를 부를 당시에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를 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예레미야 1:19)이라고 주께서는 약속하셨다. 다음은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했던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두 가지 예이다.

성전의 총감독의 책임을 맡았던 제사장 바스홀은 예레미야가 용기를 깬 인상 깊은 사건과 백성들 앞에서 예언한 일에 대해 들었다. 그는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리고 그에게 나무 고랑을 채웠다. 그러나 다음날 바스홀 앞에 불러 온 예레미야는 두려움 없이 “바스홀아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 지리니”(예레미야 20:6)라고 덧붙이며 임박한 멸망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반복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예레미야는 항복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전했다. 이 일은 몇몇 관리들의 심기를 건드렸고, 그들은 성을 떠나려는 예레미야의 시도를 반역죄로 몰아 그를 체포하고 투옥했다.(예레미야 37:6~15 참조)

예레미야는 무서운 지하 감옥의 물웅덩이에 던져져 굶어 죽을 지경에 처했다. 물웅덩이는 물을 모아서 저장하기 위해 바위를 깎아 만든 배 모양의 구멍이다. 이 웅덩이의 바닥은 몇 년 동안 침전 토사가 쌓여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예레미야 38:6) 질 정도로 깊었다. 왕의 종이었던 구스 사람 에벳멜렉의 용기와 기독교인다운 봉사가 아니었다면, 예레미야는 분명 죽었을 것이다.(예레미야 38:7~13 참조; 또한 니파이일서 7:14 참조)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예레미야는 그의 백성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관계없이 그 일을 실천할 만큼 유순한 자세를 지녔다.

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했으며, 백성이 그의 충고에 따르기를 한결같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 주님께 돌아올 것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호소한 후 오래지 않아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예레미야 44장 참조)

예레미야가 겪었던 고통들은 그의 인생을 다듬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가장 강력한 도구 가운데 일부였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고 또 인내하며 견디는 것들은 우리에게 경험과 유익을 줄 수 있다. (교리와 성약 122:7~8 참조) 칠십인 정원회의 존비 더슨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쉽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 충실하게 봉사하며 모든 도전을 단호히 ... 훌륭하게 처리하는 사람들은 온 영혼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성품을 형성시켜 주는 축복이며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들입니다."²

에는 명예로운 그릇으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봉사와 유순함, 그리고 오래 참음의 귀감이 된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분의 손 안에서 유순하며,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서 배우기만 한다면, 우리의 생애 또한 토기장이 주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져 명예로운 그릇이 될 수 있다. □

진 에이 티판 장로는 태평양 제도 지역에서 봉사하는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이다.

주

1. "다시 시작함", 성도의 빛, 1982년 7월호, 16쪽.
2. "아무도 쉽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빛, 1993년 1월호, 46쪽.
3. *History of the Church*, 4:478.

명예로운 그릇

1841년 12월 19일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다. 윌포드 우드러피 간직하고 있던 그 모임의 회의록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히버 시 김볼 장로는 ...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에 관해 가르쳤다. 토기장이의 손에서 망가진 진흙은 녹로에서 떼어져, 다시 분쇄기로 던져지고, 그 다음 가마를 기다리는 불명에 스러운 그릇이 되지만, 토기장이의 손에서 모양이 잘 다듬어진 모든 진흙은 ... 명예로운 그릇이 된다고 했다."³

예레미야는 참으로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한 예언자였다. (힐라맨서 8:20 참조) 구세주 자신도 땅 위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예레미야의 말씀을 사용하여 가르치고 예언하셨다. 그의 생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용기를 깨뜨리고 그들의 멸망에 관해 예언하라고 지시하셨다. 예레미야가 이러한 임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순종이 필요했다.



질 의 응답

저는 슬플 때가 많습니다. 좀더 행복을 느끼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교회의 교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리아호나의 대답

예언자 리하이는 “범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니파이이서 2:11) 하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상대 되는 것, 즉 건강과 질병, 선과 악, 빛과

어둠, 행복과 비참함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슬픔은 필멸의 세상에서의 우리 경험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일 자주 슬프거나 오랜 기간 동안 우울하다고 느낀다면 주의해야 합니

다. 이러한 과도한 느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즉시 부모님이나 교회 지도자에게 말하십시오. 기도와 신권 축복을 통해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언제든지 도와 주실 수 있습니다.

슬픔이 지속된다면, 여러분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 불안정을 겪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부모님이나 교회 지도자는 의사나 상담자와 같은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서 도움을 받도록 권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와 약물 치료 및 다른 의학적 도움이 여러분의 대답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만들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임을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리하이는 루시퍼가 “하늘에서 타락하여 영원토록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온 인류를 비참하게 하려”(니파이이서 2:18)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하기 때문에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들은 의심과 낙담을 조장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간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잠재력에 의문을 품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죄의 결과라면 예수



사진 촬영: 스티브 번더슨



“행복의 추구”

“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행복과 불행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

“... 어느 누구도 하루 24시간, 일주일의 7일 내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종일토록 계속되는 행복을 기대하기보다는 순간 순간의 작은 행복들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으며, 행복의 요소들을 인식할 줄 알아야 하며, 그것들이 지속되는 동안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

“... [행복으로의] 그러한 여행은 비이기심과 지혜, 만족과 신앙이라는 둘로 한 단계씩 차곡차곡 쌓아 올라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발전과 성취를 가로막는 장애물에는 자기 불신, 자기 비하, 자기 연민, 참혹함, 절망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행복의 추구”, 리아호나, 2000년 10월호, 2~7쪽) □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여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으나 여러분의 죄가 회개를 통해 해결 되었음을 아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감독과 지부장이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낙담이나 의심에서 비롯되었다면, 구세주를 믿는 신앙을 강화 시키기 위해 성신의 동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기도도와 신권 축복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외적 환경이 슬픔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여러분에게서 돌아설 수도 있고, 사람들이 무관심할 수도 있고, 부상을 당하거나 이룰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들이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우리를 뒤덮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 속에서 위안을 얻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앨마서 13:28 참조)

우리 모두는 이생에서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움으로 그것들을 견딜 수 있습니다. 리하이는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라.”(니파이서서 2:25)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매 순간마다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딘다면, 언젠가는 그분의 면전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

다. 영어로 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려면 www.ldsfamilyservice.org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독자들의 대답

슬플 때 구세주의 희생을 생각하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어.”라는 따뜻한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을 느끼고 그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베로니카 톨레도 라자나스, 19세, 필리핀 파시그 스테이크, 파시그 제1와드

좀더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더 큰 사랑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비오마 매두메르, 17세, 나이지리아 우무아히아 스테이크, 올드 우무아히아 지부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행복에 이르는 길을 보여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생활에 불려오며, 나쁜 느낌들이 우리 마음에서 거할 자리를 찾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버진 테이호타이타, 23세, 타히티 라로마타이 스테이크, 우투로아 와드

행복을 느끼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행동을 보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해 주십시오.



엘레나 그리트센코, 16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지방부,
블라디보스토크 제2와드

어느 날 저는 계속 살아갈 수 없다고 느낄 만큼 슬펐습니다. 저는 경전을 펼쳤습니다. 읽기를 마쳤을 때, 평안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또 저를 위로하실 것임을 알았습니다.



구아달루페 켈레스테 무 줄,
19세,
멕시코 칼키니 지방부,
칼키니 지부

슬픈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경전과 리아호나(인도네시아어)를 읽습니다. 경전은 저의 신앙을 강화시켜 주며, 리아호나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잔나 위디아 유리안티,
21세,
인도네시아 수라카르타
지방부,
반야사리 지부

나쁜 감정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저는 축복사의 축복을 읽고 상고하며, 성

전에 참석하여 그 거룩한 곳의 영을 느끼도록 노력하며, 구세주의 위대한 희생 곧 속죄의 영원한 권세에 의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훔베르토 마틴즈 아라쥬 이세,
22세,
브라질 파울리스타 올린다
스테이크,
카에테스 제1와드

저는 경전 공부와 기도가 문제를 극복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아텔레아 모에아타 이세 장로,
20세,
통가 누쿠아로파 선교부

슬픔은 이유 없이 오지 않으며, 갑자기 또는 우연히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는 우울함을 느꼈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했을 때, 제가 옳지 않은 일을 선택하고 있음을 성신이 저에게 경고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더 기도하고, 물문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아나 라차로티 도스
네베스 올리베이라, 17세,
포르투갈 코임브라 지방부,
산타클라라 지부

행복하지 않을 때, 저는 지부 활동에 참여합니다. 또는 리아호나(사모아어)나 경전을 읽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를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여가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토포이 에이 마라에타아, 16세,
사모아 파고파고 스테이크,
파가사 지부

질의응답은 청소년을 위한 기사로서, 여러 나라에서 온 청소년들의 응답을 폭넓게 선정하여 신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대답을 2002년 11월 15일 이전까지 도착되도록 다음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and Answers 11/02, Liahona, Floor 24,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cur-liahona-imag@ldschurch.org로 전자 우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답을 여러분의 언어로 타자하거나 정서하고, 성명, 나이, 주소, 와드 및 스테이크(또는 지부 및 지방부)를 명기하여 주십시오. 본인 사진 1장을 동봉해야 하며 이 사진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질문: 내년엔 19살이 되며, 지금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멜기세덱 신권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에 따르는 책임들과 경험이 제가 아론 신권에서 겪었던 것들과 어떻게 다른지? 멜기세덱 신권을 받기 위해 어떻게 최선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

신권 지도자를 지지함

다 음 내용을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과 함께 토론한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누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경험과 간증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한다.

신권이 지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을 받고 있는가?

교리와 성약 84편 19~21절과 36절: “이 대신권은 복음을 전하고 왕국의 비밀의 열쇠 곧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를 지니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로써 의식을 집행할 때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그 의식과 신권의 권위 없이는 경건의 능력은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느니라. … 이는 나의 종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임이라.”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만일 신권의 권세가 지상에 없다면, 사탄은 마음껏 돌아다니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맹위를 떨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몽해 주는 성신의 은사도 없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하는 예언자도 없으며, 신성하고 영원한 성약을 맺을 수 있는 성전들도 없고, 축복이나 침례를 통해 치료하거나 위안을 줄 권능도 없을 것입니다. 신권의 권세가 없으면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2:1~3 참조) 빛도, 소망도 없이 오로지 어둠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신권의 축복”,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32쪽)

매리 엘런 더블류 스무트, 본부 상호부조회 전임 회장: “우리는 … 회복된 신권

의 축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갓난아기가 축복 받는 것을, 어린이가 침례 받는 것을, 우리가 성찬을 취하고 또 교회 부름을 성별하고 남편들이 가정의 축복을 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밝혀 주고 또 우리에게 방향과 소망을 주는 신권 축복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당한 신권 소유자를 기뻐하고 또 지지합니다.”(“시온의 딸아 기뻐하라”,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113쪽)

우리의 행동으로 어떻게 신권 지도자를 지지할 수 있는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나는 여러분께 말일성도의 행복, 말일성도의 평화, 말일성도의 발전, 말일성도의 변영, 그리고 이 백성의 영원한 구원과 승영은 하나님의 신권 지도자의 권고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달려 있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성도의 벗, 1972년 11월호, 13쪽)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여러분은 감독을 지지합니까? 여러분은 스테이크장과 교회의 총관리 역원을 지지합니까? 여러분은 애매한 태도를 취하거나, 비난하고, 험담을 하거나 또는 부름을 거절하는 자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여, 내나이까?’ 하고 묻는 자입니까?”(Follow the Brethren, Brigham Young University Speeches of the Year [1965년 3월 23일], 9쪽)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

원회: “우리가 손을 들어 교회의 대관장을 지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모든 신권의 열쇠를 정당하게 지닌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하여 오는 지시와 권고에 순종하겠다는 성약을 하나님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성약입니다.”(“성회”,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14쪽)

교리와 성약 108:7: “그러므로 네 모든 대화로, 네 모든 기도로, 네 모든 훈계로, 네 모든 행위로, 네 형제를 격려해 주라.” □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온 세상에 가서
나의 이름을 증거[함]”



얼 시 Ting 장로
칠십인 회장단

“우리는 세계적인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말씀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업입니다.” 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51쪽) 교회의 회원 수는 전세계적으로 천 백만이 넘으며 계속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구세주의 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97년 4월 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에서 힝클리 대관장은 증가하는 전세계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교회 부름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제삼, 제사, 제오 칠십인 정원회에 임명될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은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집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의 정확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칠십인의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백성 가운데 교회를 설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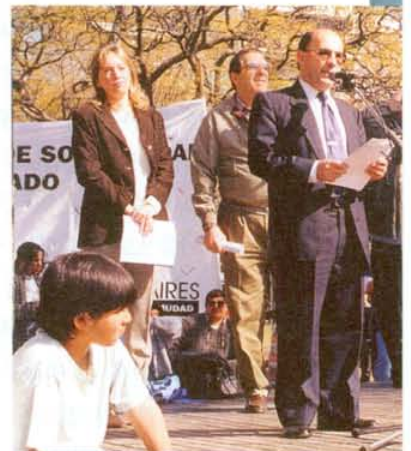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1835년 2월 8일에 칠십인 직분을 발

표했습니다. 그는 2월 28일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를 조직했습니다. (*History of the Church*, 2:181, 201~204 참조) 한 달 후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을 통해 주신 계시에서 칠십인의 부름과 역할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교리와 성약 10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칠십인도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며 이방인과 온 세상 사람에게 특별한 증인이 되나니, 이같이 교회 안에서 이들이 부름을 받는 직분의 의무는 다른 역원과과는 다르도다. ...

“칠십인은 십이사도회

오늘날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은 어디든지 온 세상에 가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포함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집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835년 2월 28일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최초의 칠십인 정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의 부름은 “복음을 전파하며 이방인과 온 세상 사람에게 특별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 지시 아래 교회를 설립하며 모든 백성 가운데서 교회의 제반 사무를 정리함에 주의 이름으로 행할 자니, 첫째는 이방인에게요, 다음으로는 유대인에게니라.

“십이사도는 복음을 전파하며 이 복음을 집행하기 위하여 몇몇 부름을 채우기 위해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다른 사람을 부르는 대신 칠십인을 소집하여 도움을 구할 의무가 있느니라. …

“또 칠십인의 수 가운데서 선정된 일곱 사람의 회장이 칠십인을 통할하나니, 이는 칠십인의 반차를 나타내 보이는 시현으로 말미암느니라.

“제칠 회장은 다른 여섯 회장을 통할하느니라.

“이들 일곱 회장은 저들이 속한 제일 칠십인회 외에 다른 칠십인을 선택하며 저들을 통할하느니라.

“이러한 연후에 포도원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 필요하면 다른 칠십인을 선정하되 칠십인의 칠배에 이르기까지 하라.

“이들 칠십인은 순회 전도인이니, 먼저는 이방인에게요, 다음으로는 유대인에게니라.”(교리와 성약 107:25, 34, 38, 93~97)

그렇다면 칠십인의 역할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시 아래 교회를 설립하며 모든 백성 가운데서 교회의 제반 사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십이사도는 복음을 전파하고 집행하는 것을 돕도록 칠십인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은 칠십인이라는 부름의 일부로서 신권의 열쇠를 지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관장단이나 십이사도 정원회로부터 지명을 받을 때에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열쇠가 위임됩니다. 브리감 영(1801~1877) 대관장은 칠십인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여러분을 보낼 때, 우리는 여러분에게 열쇠와 권세와 권능을 줄 것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7:308)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들은 성임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십이사도들이 보내는 대로 온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사도의 권능을 받습니다.

성장하는 영향력

주님께서는 “이러한 연후에 포도원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 필요하면 다른 칠십인을 선정하되 칠십인의 칠배에 이르기까지 하라.”(교리와 성약 107:96)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의 필요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1997년 이전에 세상에서 교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움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부름, 즉 1967년부터 1995년까지는 십이사도 지역 대표가, 1995년 1997년까지는 지역 관리 역원이 제공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엘 알딘 포터 장로의 “A History of the Latter-day Seventy,” Ensign, 2000년 8월호, 14~20쪽 참조)

1967년이 되면서 교회는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5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의 최초의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습니다. 9년 후에 69명의 십이사도 지역 대표가 부름을 받았고,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 29개의 스테이크가 생겨났으며, 교회의 회원은 2백 6십만 명이 되었습니다. 지역 대표는 자신의 집에 거처하면서 십이사도의 지시 아래 스테이크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강화하는 일을 했습니다. 1995년에 이 부름이 중단되었을 때 전세계에서 봉사하는 지역 대표의 수는 284명이었습니다.

1995년에 핑클리 대관장이 지역 관리 역원의 부름을 발표했을 때, 교회 회원은 9백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핑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역 관리 역원은 대제사로서 과거나 현재의 경험있는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부름 받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현 직업에 그대로 종사하고 자택에 거주하며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계속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봉사 기간은 유동적일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략 6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역 회장단과 밀접하게 연결될 것이며, 지역 대표의 숫자보다는 적을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51쪽)

1997년에, 지역 관리 역원이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이 되고 추가로 세 개의 칠십인 정원회가 조직되었을 때, 교회는 회원 수가 천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2,400개의 스테이크, 318개의 선교부, 약 25,000개의 와드와 지부, 그리고 56,000명의 전임 선교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운영 중인 51개의 성전과 더불어 성전이 온 세상에 세워지기 시작했으며, 51이라는 수는 그



예언적인 부름인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우리 교회에는 교회 전체에 걸친 관할권을 갖고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는 두 개의 칠십인 정원회가 있습니다. ...

“또 교회에는 지역 관리 역원으로 봉사하는 충실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가 조직되는 곳마다 부름을 받아 왔습니다. 그들은 충실하고 헌신적이며, 교회를 사랑하고 많은 능력을 발휘하여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저희는 세계 각지를 다닐 때 그들 중 많은 분들과 함께 일하는데, 그들의 뛰어난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

“... 우리는 본 대회에서 칠십인으로 성임되는 이 지역 관리 역원들의 이름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은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의 감리를 받는 정원회 회원이 됩니다. 명칭은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이라고 하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봉사하게 됩니다. 부름은 대관장이 주게 되며, 십이사도 정원회,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및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 회장단으로부터 전반적인 지시를 받아 봉사합니다. ...

“칠십인으로서 그 분들이 받은 성임과 일관되게, 이분들은 정원회와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관련이 있는 교회 역원이 됩니다. 이분들이 함께 모여 정원회 모임을 가질 기회는 한정되겠지만,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이 그 분들과 연락하고 지시하며 보고 받고, 또한 그와 비슷한 다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분들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소속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

“우리는 정원회 회원이 되어 활동하게 된 이 형제님들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우리는 그 분들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 분들에게서 긍지를 느낍니다.

“이 각 정원회가 발족됨으로써, 우리는 지역 회장단과, 필요에 따라 세계 각지에서 택함 받고 봉사하는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의 조직을 갖추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회원들을 돌보도록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계십니다.” - 고든 비 항클리 대관장(“우리 모두 충실하고 참되게”,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5~6쪽) □

로부터 3년 후에 배가 되었습니다.

1997년 이래로 칠십인 관리 역원은 성장하는 교회에서 대관장단, 십이사도, 칠십인 제일, 제이 정원회의 어깨에 놓여 있는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언자들이 우리 시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한 것을 볼 때 성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 영원히 설 것이라”(다니엘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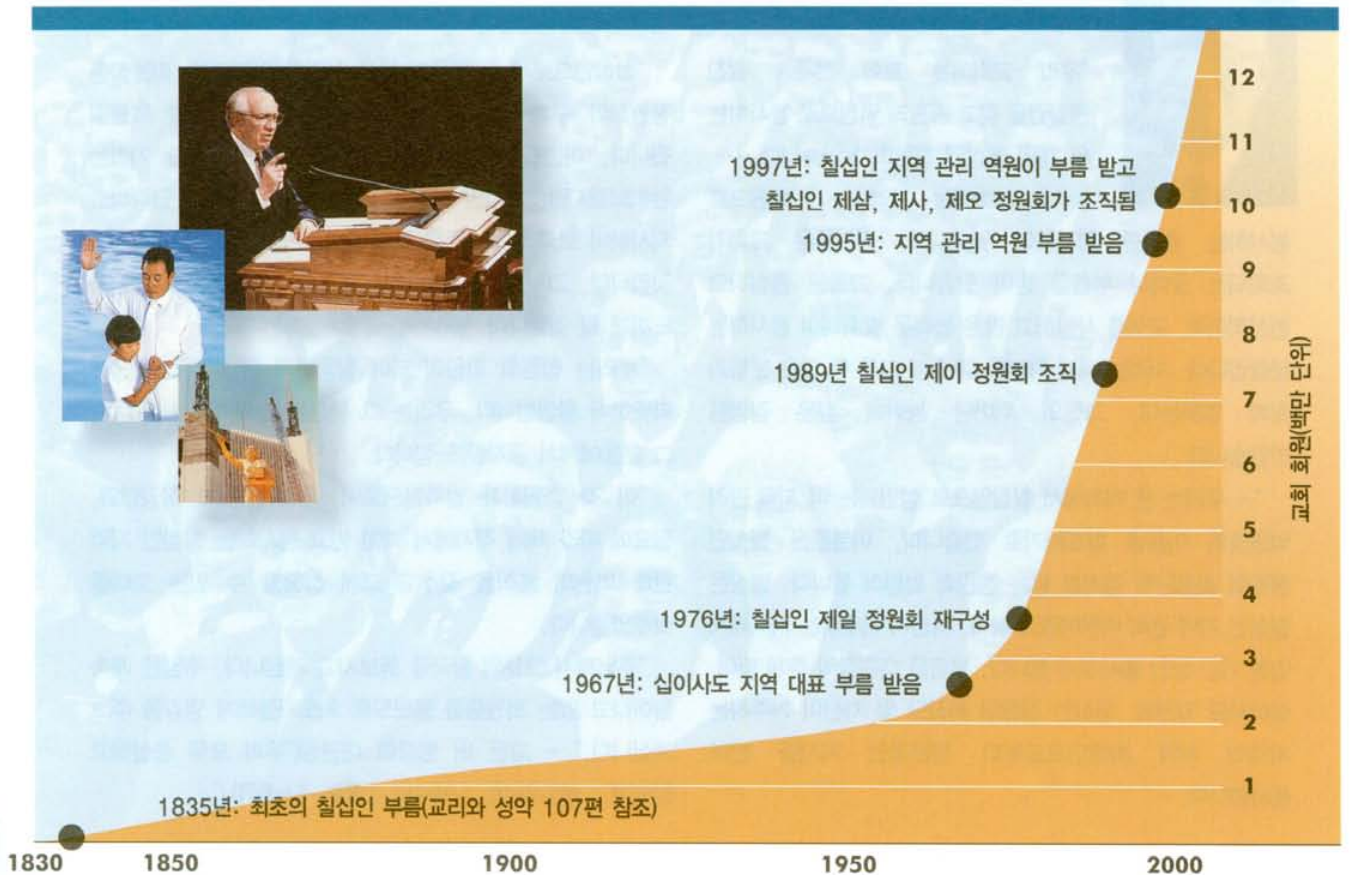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가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 위임되었나니, 그곳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굴러 퍼지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채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퍼지듯이 드디어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리라.”(교리와 성약 65:2)

집을 나누어 짐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은 임무가 주어질 경우, 칠십인 제일, 제이 정원회의 의무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칠십인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은 칠십인 제일, 제이 정원회와 어떻게 다릅니까?

첫째,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교회 일에 봉사합니다. 칠십인 제일, 제이 정





칠십인 제삼 정원회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및 태평양 지역

칠십인 제사 정원회

멕시코, 중앙 아메리카 및
남아메리카

칠십인 제오 정원회

미국 및 캐나다

원회의 회원들은 어느 곳으로 임무 지명을 받든지 여행하며, 전임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직업을 포기합니다.

둘째,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은 지리적인 지역에 따라 정원회에 지명됩니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및 태평양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제삼 정원회에 임명되며, 멕시코, 중앙 아메리카 및 남아메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제사 정원회,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은 제오 정원회에 임명됩니다. 제일, 제이 정원회는 지리적인 경계가 없습니다.

셋째, 제일, 제이 정원회의 회원들은 총관리 역원으로 명명되며 제삼, 제사, 제오 정원회의 회원들은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명명됩니다.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합니까? 핑클리 대관장은 1997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이 부름을 발표했을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임무를 설명했습니다.

- 스테이크 대회 감리 및 스테이크장단 훈련
- 스테이크 조직이나 재조직 및 스테이크장단 성별
- 지구 대회 준비 위원회 위원장
- 지역 평의회에서의 봉사
- 선교부 순회 방문 및 선교부장 훈련
- 지역 회장단에서의 봉사("우리 모두 충실하고 참되게",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6쪽 참조)

세 명의 칠십인정원회 회원들은 전세계에 산재해 있는 29개의 교회 지역 본부에서 각기 지역 회장단으로 봉사합니다. 과거

에는 이 임무가 칠십인 제일, 제이 정원회 회원들과 그 부인들에게 막중한 책임으로 부과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종종 수년씩 가족을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현재 늘어나고 있는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역 회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1997년 이래로 몇몇 지역 회장단에는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들어 지역 회장단에서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의 역할이 확대되었습니다. 교회의 지역 회장단 가운데 두 곳은 전원이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중앙 아메리카 지역은 세 명의 과테말라인들이 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엔리케 알 팔라벨라 장로, 홀리오 이 말바라도 장로, 그리고 이스라엘 페레스 장로가 감리하는 지역에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벨리즈가 포함되어 있으며, 403,000명의 회원에 78개의 스테이크와 10개의 선교부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생긴 아이다호 지역은 아이다호에 살고 있는 세 명의 칠십인 관리 역원, 즉 시 스코트 그로우 장로, 디 렉스 게렛 장로, 그리고 로널드 엘 러브랜드 장로가 감리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317,000명의 회원과 96개의 스테이크, 그리고 2개의 선교부로 구성되어 있는 남부 아이다호 지역을 감리하고 있습니다.

1835년에 처음 부름 받은 칠십인은 시온 진영이 행군하는 동



안 교회에 대한 충실함과 충성심을 증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슷한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은 훌륭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책임감이 있고 순종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크장이나 선교부장으로 봉사했으며, 모범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입니다.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에서 해임되면 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와드와 스테이크(지구부와 지방부)로 돌아가 봉사할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 부름과 임무를 부여받든 그것을 통해 그들은 계속 주님의 왕국에서 헌신할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에 주어지는

계속되는 계시

미래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현재 회원 수는 천 백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와 종교가 다른 일부 사람들은 금세기 말이 되면 우리 회원 수가 2억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칠십인 정원회의 수와 칠십인 정원회 회원의 수는 교회의 필요 사항에 따라 증가하고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존 테일러(1808~1887) 대관장은 1883년 4월 14일에, 칠십인 정원회 조직에 대한 주님의 뜻을 여쭙어 다음과 같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주께서 대관장단, 십이사도, 칠십인과, 나의 거룩한 신권을 소유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니라. 교회와 신권의 관리와 조직, 그리고 나의 사업의 성취에 관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나를 경외하고 나의 율법을 준수하라. 그리하면 나는 때에 따라, 내가 정한 경로를 통해 장차 나의 교회가 발전하고 완전케 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과 왕국의 조정과 발전, 나의 시온 건립과 설립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 주리라. 너희는 나의 신권 소유자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참으로 그러

주님께서는
예언자에게 주시는
계속되는 계시를 통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완전한 조직을
마련하십니다.

하도다. 아멘”(제임스 알 클라크 편찬,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6권 [1965~1975], 2:254)

오늘날 우리는 칠십인 정원회 조직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계속되는 계시를 받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의 부름과 칠십인 정원회가 다섯 개로 확장된 것은—정원회의 수

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만—교회에서 계시가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본적인 조직의 변경 없이, 필요에 따라 추가로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을 부름으로써 교회는 미래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에게 주시는 계속되는 계시를 통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완전한 조직을 마련하십니다. 교회는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우리가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는 이들 15명의 지도 아래 안전합니다.

저는 지난 35년 동안 교회의 지도력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지켜보고 또 참여해 왔습니다. 저는 지역 대표로 봉사했으며, 1995년 지역 관리 역원들이 부름 받았을 때 칠십인 회장단에 있었습니다. 1997년에 지역 관리 역원들이 칠십인으로 성임되어 새로 설립된 칠십인 정원회 가운데 하나에 임명될 것이라는 소식을 대관장단으로부터 들었던 때의 잊을 수 없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때 계시를 경험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칠십인 정원회들 사이에서 생겨난 형제애의 놀라운 유대감을 지켜보았습니다.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아 칠십인 제삼, 제사, 제오 정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증거를 전하는 짐과 책임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주님께서 초기 칠십인에게 주신 다음과 같은 임무 수행을 돕는 것입니다. “나의 사도가 내 앞에 길을 예비하러 보내는 곳은 어디든지 온 세상에 가서 나의 이름을 증거할 ... 장로로 설정되어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124:139) □

그분은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

발레리아 텔로

내가 세미나리를 졸업하는 해가 시작되기 며칠 전, 새로운 교사인 페르난데스 형제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는 나와 언니에게 성찬식에서 그들 부부와 함께 첫번째 시현에 관한 찬송가를 불러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한 번도 대중 앞에서 노래를 불러 본 적이 없었고, 늘 목소리에 자신이 없다고 생각해 왔으나, 거절할 수도 없고 해서 해보기로 했다. 그 찬송가는 내가 잘 모르는 것이었다. 발표를 하기 며칠 전에 페르난데스 형제는 언니와 내가 우리의 파트를 배울 수 있도록 카세트 테이프를 빌려 주었다.

발표를 하기 전날인 금요일에 목이 아프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숨쉬기가 어려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온 몸이 아팠다.

다음날 아침 몸이 아파 끙끙거리며 일어났을 때, 어머니는 병원에 가 보라고 하셨다. 의사는 몇 가지 약을 지어 주고 집에 가서 쉬라고 했다.

나는 그날 자리에 누워 있어야 했다. 열이 내려가지 않자 가족들은 걱정을 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몸이 낫게 도와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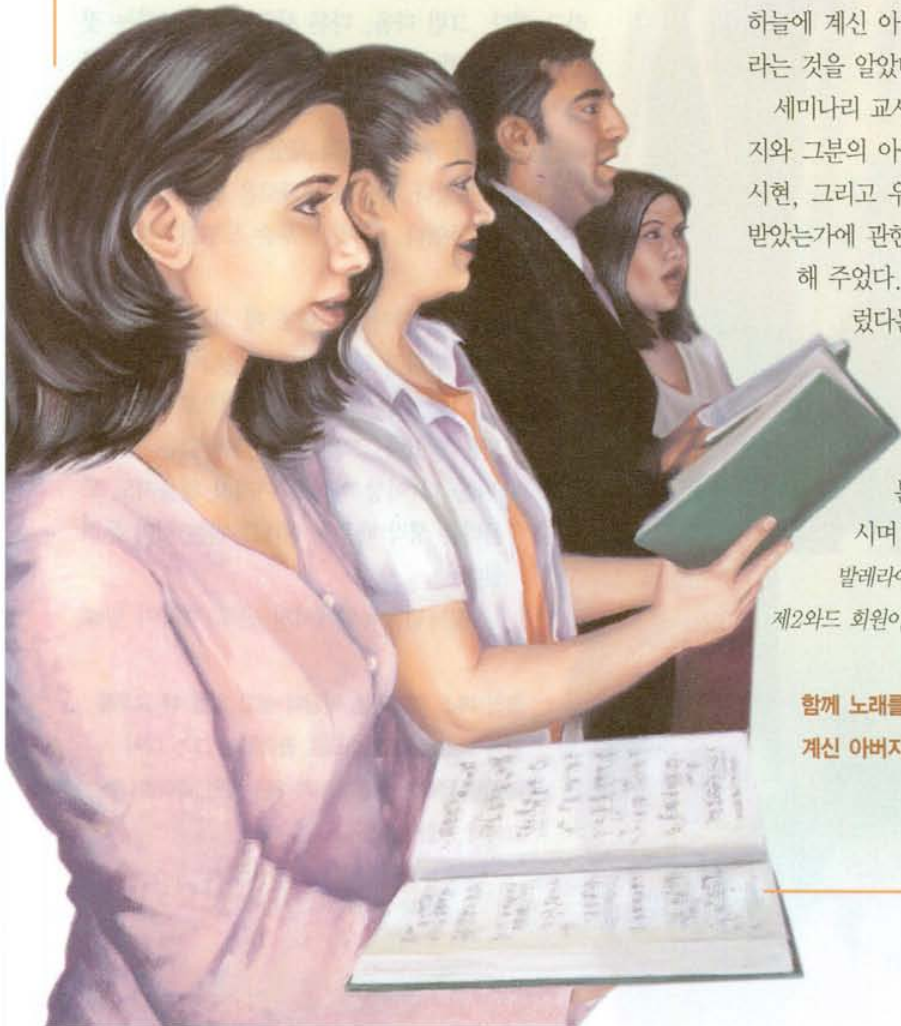
일요일에 일어났을 때, 상태가 훨씬 좋아졌으며 교회에 갈 수 있었다. 세미나리가 내게 준 축복에 대한 간증을 나눈 뒤, 노래를 부를 시간이 되었다. 잘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며 도와 주시리라 믿었다.

세미나리 교사와 그의 아내, 그리고 언니와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시현,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의 사업에 봉사하도록 어떻게 부름 받았는가에 관한 노래를 불렀다. 나중에 회원들은 우리를 칭찬해 주었다. 그러나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은 내게 무엇보다 큰 만족감을 주었다.

나는 복음에 대해 매우 감사드린다. 왜냐하면 기도를 드릴 때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분은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필요 사항도 알고 계신다. □

발레리아 텔로는 아르헨티나 멘도사 스테이크, 플루메릴로 제2와드 회원이다.

함께 노래를 부르기로 했는데 곧 목이 아팠다. 다행히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나의 상황을 알고 계셨다.





리아호나는

필립 에스 자발레

1988년에 나는 공부와 일을 하기 위해 동남아프리카의 모잠비크를 떠나 당시의 독일 민주 공화국으로 갔다. 가게에서 두 명의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들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 보았느냐고 물었다. 나는 들어 보기는 했지만 그분이 어떤 인물인지 잘 모른다고 했다. 사실 나에게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전혀 없었다. 선교사들은 독일어 판 물문경을 주면서, 읽어 보고 기도해 보라고 했다.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전혀 본 적이 없는 나에게 기도하는 방법도 설명해 주었다.

그들이 간 후에 그들의 제언에 따라 책을 읽고 기도를 해보았다. 놀랍고 평화로운 느낌이 나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이것은 무슨 느낌인가?” 나는 의아했다.

선교사들이 다시 방문했을 때 그들은 내가 마음에 느낀 평화가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때 나는 그 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고국에 있는 아버지가 나를 더 이상 아들로 여기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이 두려웠다.

1991년, 독일에서의 근로 계약이 만료

필립 에스 자발레는 독일에 살고 있을 때 교회를 알게 되었다. 모잠비크로 돌아와서 그가 다시 복음을 접하게 되기까지의 8년 동안 리아호나는 그에게 지침이 되었다.

나의 지침이었다

모잠비크

되었을 때 나는 모잠비크의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 나라는 전쟁 중이었으며 교회는 아직 설립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언젠가 교회가 나의 조국에도 들어올 것이며, 그렇게 되면 침례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행복했다. 누가 나에게 교회에 참석하자고 권유하면 나는 이미 다니는 교회가 있다고 대답하곤 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교회?” 하고 물었다.

“아직은 우리 나라에 없지만 곧 들어올 거야.”라고 대답하면서 나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 후 다시 교회를 찾기까지 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동안 나에게서는 지침서가 있었다. 독일을 떠날 때 그곳 지부장이 내게 리아호나(포르투갈어)를 구독해 주었던 것이다. 리아호나는 8년 동안 매달 내게 배달되었다. 그것은 8년 동안 매달 나를 격려해 주고 내게 희망을 주었다. 그것을 읽을 때면 내가 다른 말일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책은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도움을 주고, 훌륭한 감정으로 나를 채워 주었으며, 겸손한 말씀들을 전해 주고 내 영혼을 먹여 주었다. 종종 질의 응답란에서는 내 자신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았다. 8년 동안, 리아호나는 나를 인도해 주었다.

그러던 1999년 어느 날, 나의 형이 일하는 우체국에 전임 선교사들이 걸어 들어왔다. 나의 리아호나는 바로 그 우체국을 통해 전달되고 있었다. 패트릭 테자물리아 장로의 명찰을 보았을 때, 형은 내 잡지에서 본 교회 이름을 기억하고 그 선교사에게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물었다. 형이 그에게 가족 중에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설명하자, 테자물리아 장로는 나를 만나게 해 달라고 했다.

선교사를 만났다는 형의 말을 듣고 나는 매우 놀랐다. 교회가

정말 이 모잠비크에 있던 말인가?

나는 곧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 정부에서는 1996년에 교회를 승인했던 것이다.

선교사들을 다시 만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나는 독일에서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것을 기억했으며, 그때 내 마음에 느낀 것과 똑같은 평화를 느꼈다.

2000년 1월에 드디어 침례를 받고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되었다. 그것은 내게 커다란 축복이 되었다. 나는 교회의 모든 사업에서 주님의 영을 느낀다.

리아호나는 얼마나 고마운 책인가!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다시 그분의 교회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과 소망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

필립 에스 자발레는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선교부, 마푸토 지부 회원이다.

2000년 1월에 있었던 필립의 침례식에 모인 회원과 선교사들



결혼으로 하나가 됨

단순한 결혼 의식이 행복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자아를 잊는 것과 지속적인 구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이 요구됩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대관장

명예롭고 행복한 성공적인 결혼은 모든 정상적인 사람이 추구하는 주요 목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결혼은 현재의 행복과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결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결정일 것입니다. 결혼은 당사자 두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특히 그들의 자녀와 그 후손에게까지 대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과 마음의 일치

현세와 영원을 위한 동반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모든 결정 중에서도 이 결정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장 신중하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금식해야 합니다. 참된 결혼에는 감정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의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 감정에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진지하게 숙고하면 정신과 마음이 강화되어 결혼 생활에서 최대의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희생과 나눔, 그리고 대단한 비이기심이 요구됩니다.

많은 텔레비전 방송극과 소설이 결혼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하여 이 두 사람은 그 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결혼 의식이 행복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행복이란 스위치를 누르면 전깃불이 켜지는 것처럼 그리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이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며,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아무런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행복이 안일하고 화려하며 늘 흥분에 찬 생활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결혼이란 서로 주고 봉사하며 나누고 희생하는 비이기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행복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마음을 이해함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 온 두 사람은 결혼 의식이 끝나면 곧 냉혹한 현실을 직면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환상적인 삶도, 가장된 삶도 없습니다. 그들은 뜬구름 같은 공상의 세계를 벗어나 현실 세계에 굳건히 발을 디뎌야 합니다. 그들은 각자의 책임을 떠맡고 새로운 의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자유를 포기해야 하고, 많은 조정을, 즉 비이기적인 조정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전에 드러나지 않았거나 발견되지 않았던 배우자의 결점을 결혼 후에 곧 알게 됩니다. 구애 시절에는 크게 돋보였던 상대방의 덕성은 점점 작아지고, 연애 시절에는 하찮게 생각되었던 결점이 점점 커집니다. 그때가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을 평가하며, 올바른 상식과 이성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심화, 그림그리기

니다. 수년 동안 갖고 있던 습관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배우자가 인식한 사람이거나 낭비벽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게으른 사람이거나 근면한 사람일 수도 있으며, 또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친절하고 협조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화를 잘 내고 까다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거나, 자기 중심적이거나 소극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인척 문제가 점차 표면화되고 배우자와 그들의 관계가 다시 확대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당면한 무거운 책임을 해결하고 떠맡는 것을 꺼려 합니다. 또 사람들은 낭비하는 생활 대신에 절약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젊은이들은 종종 이웃이 갖고 있는 것을 자기도 몹시 갖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가계 예산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기를 꺼려 합니다. 젊은 아내들은 성공한 자기 아버지의 부유한 가정에서 누리던 사치스러운 생활을 현재의 자신의 가정에서도 계속 누릴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자주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돈을 잘 쓰는 풍족한 생활을 위해 결혼 후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아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임무가 있는 가정을 떠나 직업이나 사업상의 목표를 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가계가 안정되지만 자녀들과 가정에 머물기 위해 그것을 포기하는 일은 매우 힘들게 됩니다. 부부가 모두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가정에는 협조보다는 경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일에서 지친 두 사람은 개인적인 자존심과 강한 독립심을 지니고 날카로워진 신경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오해가 생깁니다. 사소한 마찰이 쌓여 결국은 큰 마찰이 됩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공식

결혼 생활은 어렵고, 불협화음과 좌절이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러나 이 결혼 생활에서 우리는 참으로 영속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환희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모든 사람, 모든 부부가 실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개성과 취향이 자기와 똑같은 배우자"는 소설과 같은 허구요, 환상입니다. 모든 젊은 남자와 여자는 가장 조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모두 노력의 대가를 기꺼이 치르고자 하기만 한다면, 선한 남여기의 모두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든 부부에게 행복하고 영원한 결혼 생활을 보장해 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식이 그렇듯이 주요 요소가 삭제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애하기 전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과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계속 구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혼 생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혼의 성공은 두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쪽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합당한 표준에 기초를 두고 시작한 결혼 생활에는 부부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의 내면의 힘을 제외하고는 그 결혼 생활을 파멸시킬 수 있는 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들이 책임을 저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과 작용들이 좋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 사회적, 정치적 및 그 밖의 상황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란 첫째로 항상 두 배우자에게 달려 있으며, 두 사람이 굳은 결심을 가지고, 비이기적이며, 의로울 때 성공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식은 간단합니다. 요소는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단지 각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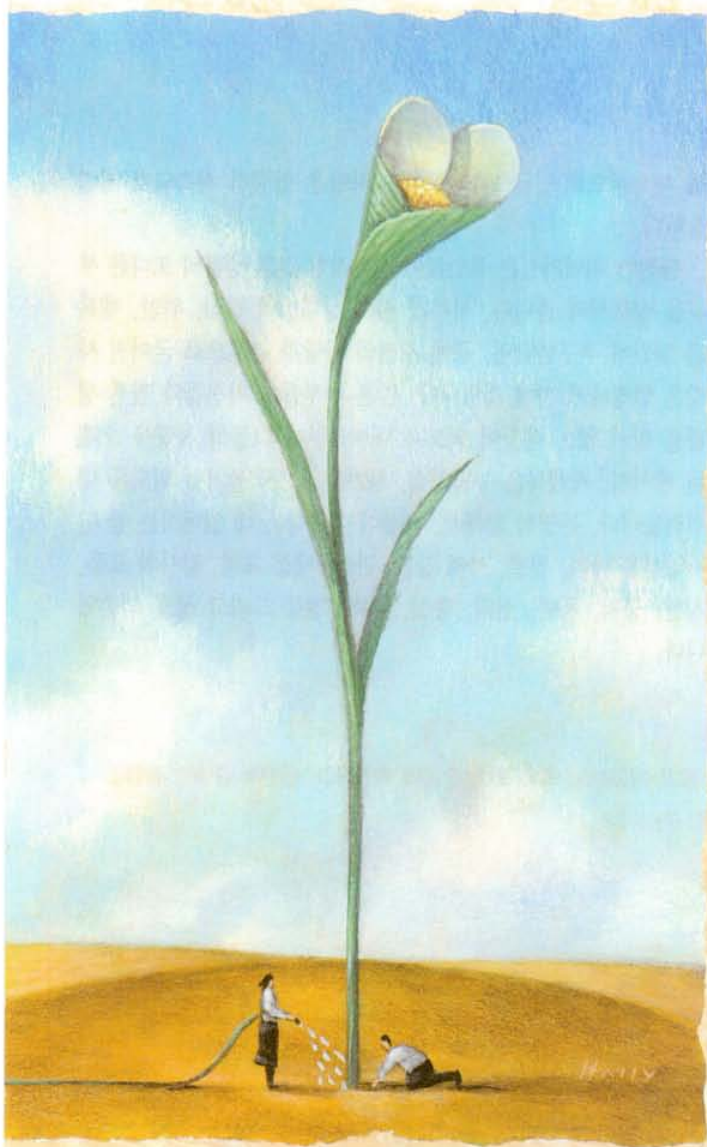
첫째, 결혼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두 사람에게 중요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가능한 한 거의 완전히 알고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잘 생각해 보도록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당사자는 성공적인 공동 생활을 위해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성전의 제단으로 가야 합니다.

둘째, 대단한 비이기심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극복하고 잊어버리며, 가정 생활의 모든 일을 오로지 가족의 유익을 위해 해야 합니다.

셋째, 사랑이 식지 않도록 계속 키우기 위하여 계속적인 구애와 애정의 표현과 친절과 사려 깊음이 필요합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주님의 모든 계명을 온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상의 요소들을 적절히 혼합하여 계속해서 실천해 나갈 때, 불행이 찾아 들거나 오해가 계속되거나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일



사랑은 꽃과 같아서 계속 영양의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의 영양분인, 존경과 칭찬의 표현, 감사의 표시, 비이기적인 배려와 같은 영양분을 계속적으로 공급 받지 못하면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길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혼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업무를 다른 분야로 바꿔야 할 것이며, 이혼 법정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나”에서 “우리”로

결혼의 제단에 나가는 두 사람은 먼저 자신들이 바라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결혼 생활이 법으로 다스려

질 사항이 아니라 희생하고 나누며 개인적인 자유를 어느 정도 줄이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혼 생활은 장기간의 고된 절약 생활을 뜻합니다. 결혼 생활은 재정적인 부담, 돌보아 주어야 하는 부담, 그리고 보살피고 걱정해야 하는 부담을 두 사람에게 안겨 주는 자녀를 의미합니다. 또한, 결혼 생활은 모든 정서 중에서 가장 깊고 달콤한 정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혼 전에 두 사람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구상하고 계획할 수 있으며, 항상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인들은 결혼 서약을 맺기 전에 작은 새로운 가족의 유익이 각 배우자의 유익보다 언제나 우위에 있어야 함을 문자 그대로 또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부 각자는 “나” 또는 “나의”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그 대신에 “우리” 또는 “우리의”라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부는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그 결정으로 인해 두 사람 이상이 영향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내가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할 때 그녀는 그러한 결정이 부모, 자녀,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생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남편의 직업 선택, 사회 생활, 친구들, 그 밖의 관심사도 이제 그가 오직 가족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전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 항상 평탄하거나 무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커다란 평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결혼 생활 중에 가난과 질병과 실망과 실패를 겪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족과 사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도 부부의 평화를 빼앗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기심이 깃들지 않는 한, 결혼 생활은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완전한 자기 희생적인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면, 역경이나 어려운 문제로 인해 도리어 부부는 깨질 수 없는 결속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1930년대의 경제 공황기에 이혼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가난과 실패와 낙담, 이러한 요인들이 부부를 보다 굳게 결속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번영이 파괴시킬 수 있는 관계를 역경은 굳게 결속시켜 줄 수 있습니다.

행복을 주기 위하여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결혼 생활은 거의 틀림없이 실패하고

맙니다. 부를 바라고 결혼하는 사람, 명성이나 사회적 지위를 바라고 결혼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낙담하게 됩니다. 허영과 자만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결혼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우롱할 뿐입니다. 그러나 행복을 구할 뿐만 아니라 행복을 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 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섬기려고 결혼하는 사람, 두 사람의 관심사를 추구하고 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가족들의 관심사를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십중팔구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꽃과 같고, 신체와 같아서 계속 영양의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영양의 공급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 신체는 곧 쇠약해져서 죽고 맙니다. 연약한 꽃도 영양분과 물이 공급 받지 못하면 시들어 죽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영양분인, 존경과 칭찬의 표현, 감사의 표시, 비이기적인 배려 등

을 계속적으로 공급 받지 못하면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완전한 비이기심은 틀림없이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또다른 부분을 성취시켜 줍니다. 부부가 서로 상대방의 관심, 위안, 행복을 영원히 추구한다면, 구애 시절의 사랑과 결혼으로 굳어진 사랑은 엄청나게 자랄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활기 없는 생활이 되도록 내버려두며 그들의 사랑을 오래된 빵처럼, 케케묵은 농담처럼, 차가운 고깃국물처럼 되도록 내버려둡니다. 분명히 말해서, 사랑이 성장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자양분은 배려, 친절, 사려 깊음, 관심, 애정 표현, 감사의 포옹, 칭찬, 긍지, 동반, 신뢰, 충실, 협력, 평등 그리고 상호 의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주 거룩한 성전을 방문하고,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교회 모임에 함께 참석하고, 완전히 순결한 생활을 하여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 협력할 때, 행복은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행복의 절정

참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독신이건 기혼자이건, 의복지 않고서 숭고한 행복을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일시적인 만족과 잠시 동안의 위장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은 깨끗함과 합당성을 통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깊은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비활동 상태의 생활에서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지 않는 한, 양심의 가책으로 삶은 몹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비활동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파괴적인 요인이 됩니다. 특히, 부부 두 사람이 정도가 다르게 비활동적인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종교적 갈등은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며, 모든 갈등 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힘든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 인 관습이 아닙니다. 올바르고 성공적인 결혼 없이는 아무도 승영에 이를 수 없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정당하고 올바르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려 깊고 지성을 갖춘 말일성도는 도중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삶을 설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중대한 과오를 범함으로써, 결코 제거되지 않거나, 영생의 길과 신이 되는 길 곧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장애물을 도중에 둘 수 있습니다. 만일 부부가 자신의 삶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삶보다 상대방을 더 사랑하며, 부부 생활의 기반이 되는 복음 프로그램에 따라 함께 일한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크나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주 거룩한 성전을 방문하고,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교회 모임에 함께 참석하고, 항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순결한 생활을 하여 모든 생각과 소망과 사랑이 자신의 배우자인 한 사람에 집중되고,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 협력할 때, 행복은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다른 아무 여자वाद”

때때로 결혼 생활 중에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여 결합하며, 다른 아무 여자वाद도 결합하지

말라.”(교리와 성약 42:22)

이는 “온 마음을 다하여 남편을 사랑하여 결합하며, 다른 아무 남자वाद도 결합하지 말라”는 말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부모나 친구들에게 계속 집착합니다. 때때로 어머니들은 과거에 자신의 자녀에게 행사했던 지배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내들뿐 아니라 남편들도 부모에게 가서 충고와 조언을 구하고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에서 결합해야 할 사람은 아내이며, 모든 애정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고 비밀로 간직되어야 합니다.

부부는 양가의 인척으로부터 독립해서 즉시 그들 자신의 집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 집은 매우 수수하고 소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독립된 거주지입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남편의 가족들과 아내의 가족들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들을 다른 어느 때보다도 사랑하고, 그들의 권고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권고를 주어야 하는 사람으로부터 권고를 들은 후에는 여러분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기도하고 깊이 생각한 후에 자신의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결합하다’ 라는 말은 단지 같은 집에 함께 거주한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단단히 달라붙고 서로에게 충실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 둘이 한 몸을 이룸이 마땅하니, 이 모든 일은 세상의 창조 목적에 부합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의 창조에 따라 인간의 수로 가득 채우려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49:16~17)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을 논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프로그램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일에 대하여 그분과 논쟁을 벌일 수 있을 만큼 똑똑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무엇이 옳고 진실한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다음 사항을 생각해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결혼이 올바른 결혼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올바른 삶이 되도록 하십시오. 결혼 생활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행하도록 하십시오. □

1976년 9월 7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전한 영적인 말씀



살아 있는 간증

헬렌 스투르드반트

나이 마흔에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과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의사들은 내가 임신 합병증이라는 것을 알고, 곧 자리에 누워 있도록 지시했다. 남편은 내가 의사의 지시에 따를 경우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약속의 신권 축복을 주었다.

그러나 자리에 누워 있다는 것은 어린 두 아이를 돌보아야 하고 항상 할 일이 있던 나에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와드 회원들은 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자리에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정기적으로 식사를 갖다 주기 시작했다. 세 살짜리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놀도록 종종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갔다. 여섯 살짜리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그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누군가가 항상 집에 들렀다. 자매들이 자주 방문하여 집을 치우고 빨래를 해주었

우리가 존을 데리고 교회에 갈 수 있게 되었을 때, 한 어머니가 우리 아기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를 한 여덟 살짜리 아들과 함께 다가왔다. 그 아들은 자신의 신앙과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보고 싶어했다.

으며, 종종 자리에 누워 있는 내 곁에 앉아 있기도 했다.

산달보다 2개월이나 일찍 산통을 겪고, 나는 작고 연약한 아들을 낳았다. 그는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의사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리하고 장례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우리는 인큐베이터로 가서 전선과 튜브로 뒤덮여 있는 작은 아들을 보았다.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은 다른 두 형제와 함께 우리 아기 존에게 기름을 붓고 축복을 해 주었다. 아기는 살기 위해 애쓰기 시작했다.

남편과 내가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와드 회원들은 계속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 많은 봉사와 사랑을 보여 주었다. 임신 기간 중 한 번 이상,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후에 적어도 두 번 이상 와드의 전회원들이 우리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다.

한번은 아직도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아기를 데리고 교회에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교회에 갔을 때, 한 어머니가 여덟 살짜리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조용히, 거의 경건할 정도로, 그녀의 아들에게 아기를 보여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금식과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대한 간증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 아들은 자신의 신앙과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보고 싶어했다. 그는 아기를 보고 나서 울었다. 그는 어

머니에게 그가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세요.”

현재 존은 활력이 넘치고 사랑스러운 열 일곱 살의 소년이다. 그는 신앙과 자선에 대한 결의를 지닌 관대한 와드 회원들에게 살아 있는 간증이다. 그 회원들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해 우리가 느끼는 감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헬렌 스투르드반트는 텍사스 오스틴 옥스 힐스 스테이크, 파크우드 와드 회원이다.

그분의 이름을 지니라

라울 그라시아

텍사스 포트워스 선교부에서 봉사하던 어느 날, 동반자와 나는 몇몇 구도자 방문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근처에 있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에 들리기로 했다.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종업원은 나의 주문을 받은 뒤 주문한 것이 준비되면 마이크로 이름을 부를 테니 이름을 알려 달라고 했다. 나는 “그라시아 장로”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나의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나의 이름을 다시 물었다. 더 이상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나는 스페인



내가 이름을 말해 주었을 때 계산대에 있는 종업원은 나의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더 이상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나는 스페인어로 내 이름과 교회 이름이 적혀 있는 명찰을 가리켰다.

어로 내 이름과 교회 이름이 적혀 있는 명찰을 가리켰다.

주문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 동반자에게 돌아가면서 나는 그녀가 이름을 적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내 이름을 적는 대신 “Jesucristo”라고 적었다. 아마 교회의 로고 가운데서 구세주의 이름이 눈에 잘 띄었기 때문에 그녀가 실수를 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이 작은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진다. 내 명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치신 일을 내가 행함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말이다.

라울 그라시아는 캘리포니아 코비나(스페인어) 스테이크, 포모나 제3(스페인어)와드 회원이다.

평범한 사람들

마리아 마빌리아

몇 년 전 어느 날 남편과 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성전에서 이탈리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차에는 또다른 한 부부와 이제 막 전임 선교사로 나가려 하는 젊은이가 함께 타고 있었다. 우리는 성전에 참석하면서 일주일 동안 훌륭한 시간을 보냈으나, 집으로 오면서 나는 마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함을 느꼈다.

우리가 아직 독일을 벗어나지 못했을 때 나는 남편 안젤로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커다란 트럭이 맞은편에서 우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충돌 시의 충격으로 인해 우리 차는 통제력을 잃었다. 안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

직 기도뿐이었다.

우리 차는 나무에 부딪치고 나서야 멈추어 섰다. 모든 창문이 다 깨지고 사방에 유리 조각이 널렸다. 내 안경까지도 깨지고 말았다. 나는 곧 다른 여섯 대의 차도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어떤 부상자들은 중상을 입기도 했다.

곧 구급차가 도착하여 남편, 우리와 함께 타고 있던 부부, 그리고 일부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실어 갔다. 곧 선교사로 떠날 젊은이와 나는 사고 현장에 남아 있었다. 외국에서 남편도 없는데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나는 몹시 혼란스럽고 당황했다. 그래서 계속 마음속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다. 거의 즉시 응답이 왔다.

한 사람이 내게 다가왔다. 독일인이었지만 영어로 말을 했다. 나는 영어도 독일어도 하지 못했지만 그가 우리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겠다는 제의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집에 가서 차를 가지고 오겠다고 했다.

우리는 다시 홀로 남았다. 그러나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이탈리아어를 했다.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를 안고 울기 시작했다. 그도 우리를 도와 주고 싶어했지만 그 역시 차를 가지러 가야 했다.

두 사람 모두 곧 되돌아왔다. 그들은 우리의 짐을 그들의 차에 옮겨 실은 후 병원으로 갔다. 두 번째 사람은 떠났지



사고가 난 후에 곧 구급차가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실어 갔다. 외국어도 못하는 곳에 남편도 없이 홀로 남게 된 나는 계속 마음속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다.

만, 첫번째 사람은 하루 종일 남아서 내가 남편을 찾으려 도와 주었고, 새로운 안경도 사 주었으며, 밤을 보낼 수 있도록 호텔도 잡아 주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내게 용기를 주고 정신적인 도움을 주었다.

다음날 그가 돌아왔을 때 나는 선한 사

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람은 남편이나 나를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아주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도와 주었다.

그날 나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알아냈고 몇몇 회원들과 연락이 되었다. 거의 즉시 선교부장과 감독이 도착했다. 그

들은 우리에게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보았다. 남편과 여행 동반자들이 회복될 동안 교회 회원들은 우리를 도와 주었다. 그들은 방문할 때마다 그들의 사랑을 보여 주었다.

이 역경의 시기에 우리가 받은 가장 중



거기서 그렇게 러시아인과 미국인이 얼굴을 마주 대하고 서서, 회복을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찬송가 중 하나를 두 파트 화음의 휘파람으로 불고 있었다.

요한 축복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에 대해 위대한 사랑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경험으로 나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리아 마빌리아는 이탈리아 코모 지방부, 코모 지부 회원이다.

러시안 듀엣

스웬 닐슨

스웨덴 스톡홀름 성전에서 의식 봉사자로서의 바쁜 한 주를 마치고, 나는 옷을 세탁하기 위해 의식 참여자 숙소의 세탁실로 들어갔다. 세탁기에 빨래를 집어 넣으면서 나는 무의식 중에 휘

파람으로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인 “높은 산 언덕 위”(찬송가, 2장)를 불렀다. 이 찬송가와 이 찬송가에 나오는 “은 세상 사람”들이라는 가사는 항상 내게 특별한 의미를 주었다. 나는 내 자신이 그 찬송가에서 말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느껴 왔다. 이는 내가 덴마크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개종하고 열 네 살에 가족과 함께 유타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허드렛일을 하는 동안, 그 주에 성전 봉사에 참여한 러시아인 형제가 들어왔다. 그가 들어왔을 때, 나는 휘파람을 멈추었다. 그는 즉시 내가 불고 있던 그 찬송가를 휘파람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휘파람을 멈추고 나에게 신호를 보냈다. 나는 그가 멈춘 부분부터 휘파람을 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처음부터 한번 더 그 찬송가를 시작했으며, 나를 가리키며 휘파람을 멈추었다. 우리 둘 다 상대방의 언어를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손짓으로 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그가 한 것처럼 처음부터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멜로디에 그의 휘파람으로 아름다운 화음을 더했다.

거기서 그렇게 러시아인과 미국인이 얼굴을 마주 대하고 서서, 회복을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찬송가 중 하나를 두 파트 화음의 휘파람으로 불고 있었다. 우리는 찬송가를 다 마치고도 전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결국 우리는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포옹을 했으며, 그는 내가 그로부터 들은 유일한 영어인 “러시안 듀엣”이라는 말을 했다.

나는 우리 둘 다 문화적 지리적 장벽을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넘치는 감사를 느꼈다고 생각한다. 둘 다 먼 나라에서 온 우리는 믿음과 성약으로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 또다른 나라에서 기쁨의 순간을 나누며 찬송가의 가사가 말하는 바를 함께 선포할 수 있었다. “높은 산 언덕 위 깃발은 날린다 온 땅 위에 덮이니 만 백성 보네” □

스웬 닐슨과 그의 아내 서린은 스웨덴 스톡홀름 성전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2001년 6월에 귀환했으며 현재는 유타 프로보 스테이크 슬레이트 캐년 제4와드 소속이다.



최초의 감독

에드워드 패트리지는 회복된 교회에서 최초로 부름 받은 감독이었다. 1850년 이후로 그는 또한 최초의 교회 감리 감독으로 알려져 왔다. 1793년에 태어난 그는 20대였던 당시, 그 무렵에 있던 종교들을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회복된 교회에 대해 알아본 후에 그는 1830년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서 침례를 받았다. 예언자는 패트리지 감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의 좋은 예이며 그의 꾸준함과 끝까지 건디

알고 계십니까?

는 인내로 알 수 있듯이 주님의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History of Joseph Smith,” *Times and Seasons*, 1843년 9월15, 320쪽)

에드워드는 침례를 받고 두 달도 되지 않아 감독이 되었는데(교리와 성약 41:9 참조) 확실히 예언자 요셉이 언급한 “인내”가 필요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심한 박해를 받았다. 한번은 폭도들이 그를 집에서 끌어내어 온 몸에 타르를 바르고 깃털을 붙였다.

패트리지 감독은 심한 병을 앓고 난 후 1840년 5월에 나무에서 죽었다. 그는 겨우 46세였다. 패트리지 감독에 대해 주님



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는 저의 마음이 내 앞에서 순결함이니, 옛날의 나다 나엘처럼 그 속에 간사함이 없음이니라.”(교리와 성약 41:11) 교리와 성약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에드워드 패트리지 감독을 그분께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교리와 성약 124:19 참조)

지도자에게 주는 조언

유능한 지도자란 훌륭한 교사이기도 하다. 한 번은 정부 관리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며 또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느냐”고 물었다. 예언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그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그들이 스스로를 다스리게 합니다.”(존 테일러가 인용함,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Millennial Star*, 1851년 11월 15일, 339쪽) 십이사도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잘 가르쳐진 교리 및 원리는 규칙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행동에 미칩니다.”(“복음 교육”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96쪽) 위대한 지도자는 지식을 나누고 충실한 모범이 됨으로써 동기를 부여해 준다. 그들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도록 고무한다.



10월에 있었던 일

다음은 교회사에 나타나는 사건들로서 10월에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다.

1830년 10월 17일: 팔리 피 프랫, 올리버 카우드리, 피터 휘트머이세, 지바 피터슨 등이 레이맨인들에게 선교 사업을 하러 떠남.(교리와 성약 32편 참조) 가는 도중에 그들은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시드니 리그돈과 그를 따르는 회중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었다.

1917년 10월 2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행정 건물이 완공되었다. 오늘날 그 건물에는 대관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및 총관리 역원의 사무실이 있다.

2000년 10월 1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교회에서 100번째로 운영 중인 메사추세츠 보스턴 성전을 헌납했다. □



리아호나

2002년 10월호

활용하기

토론 제언

■ “두려워하지 말라” 2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그의 형을 구출하는 일을 도와 준 한스라는 젊은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스와 다른 구조자들이 두려워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가?

■ “영적인 악어” 8쪽: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악어를 영적인 약탈자에 비유한다. 이 “영적인 악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떻게 그것들을 피할 수 있는가?

■ “결혼으로 하나가 됨” 36쪽: 행복한 결혼을 위해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이 제언한 공식의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결혼 생활에서의 불행이나 오해를 막아 줄 수 있는가?

■ “그때가 올 것이다” 친구 6쪽: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선교사들이 오도록 가까이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가? 선교사들이 도착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번 호의 주제들

- 친=친구들
- 가르침 48
- 가정 복음 교육 6
- 가정의 밤 48
- 개종 34
- 결혼 36
- 겸손 18
- 교회사 47
- 교회 성장 26, 친6
- 구약 성서 18, 친16
- 기도 33, 42, 친2
- 단합 36, 42
- 두려움 2
- 모범 42, 친14
- 방문 교육 25
- 범세계적인 교회 26, 42, 친6
- 병 고침 33, 42
- 봉사 22, 42
- 선교 사업 34, 42, 친6, 친14
- 성전과 성전 사업 친4, 친16
- 순종 친4, 18
- 신권 25, 26
- 신앙 2, 33, 42, 친4, 친6
- 신약 성서 이야기 친9, 친12
- 안전 8, 12
- 예수 그리스도 2, 친9, 친12
- 외설물 12
- 유혹 8, 12
- 인내 22, 친6
- 지도력 25, 26, 47, 48
- 지지 25
- 지침 8, 34
- 초등학교 친4
-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26
- 침례 친6
- 행복 22
- 회개 8, 12, 22

자신의 지식 테스트

여러 칠십인 정원회를 각기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과 맞추어 본다.

- | | |
|-------------------|--|
| ___ 1. 제일, 제이 정원회 | ㄱ. 멕시코, 중앙 아메리카 및 남 아메리카 |
| ___ 2. 제삼 정원회 | 나.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및 태평양 지역 |
| ___ 3. 제사 정원회 | ㄷ. 미국 및 캐나다 |
| ___ 4. 제오 정원회 | ㄹ. 지역 경계 없음 |



로버트 티 베텐, 느부갓네살의 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꿈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바수나 정경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며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추위에 둘 일을 왕께 하셨습니다(다니엘 2:27~28)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유능한 종으로
만들기 위해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로부터 그릇된
자만과 헛된 야망을 제거하고,
제자의 책임을 가르치고자
하신다는 점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두려워 말라”, 2쪽
참조.